

2016년 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 결과



경상북도 · 예 천 군



일 러 두 기

■ 2016년 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는 경상북도에서 선정한 5개 부문과, 예천군에서 선정한 4개 특성항목을 조사하고 있음

▶ 2016년 경상북도 5개 부문(35개 항목) : 가구와가족, 교육, 안전, 환경, 문화와여가

▶ 2016년 예천군 특성항목(4개 항목) : 생활환경만족도, 군정정보획득경로, 향후 늘려야할 복지시설, 전통시장 개선사항

■ 2016년 예천군 사회조사는 관내 800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16.8.29~9.12(15일간)동안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것임

■ 각 통계표에서 지표의 성격에 따라 조사대상 연령, 조사대상 기간(시점) 등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조사대상연령】

▶ 본문에서 언급되는 연령은 모두 만 연령임

▶ 연령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는 '만 15세이상'임

【조사대상기간】

▶ 조사대상 기간(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2016.8.29.현재임

■ 이 자료는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시점 등의 차이로 관련 유사통계 결과와 다를 수 있음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 된 것으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수 있음

■ 2016 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 보고서는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와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을 통해 제공함

■ 수록된 자료에 문의사항이 있을시 총무과 정보통계담당(☎650-6072)로 문의 바람

< 목 차 >

□ 2016년 기준 예천군 사회조사 결과 요약		1
□ 2016년 기준 예천군 사회조사 결과 비교		4
□ 2016년 기준 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 결과		
I. 가구와 가족		9
II. 교육		13
III. 환경		18
IV. 안전		20
V. 문화와 여가		30
VI. 예천군 특성항목		
- 생활 환경 만족도		41
- 살기좋은 군 만들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점		42
- 군정 정보 획득 경로		43
- 향후 늘려야할 복지시설		44
- 전통시장 개선사항		45
□ 2016년 기준 경상북도·예천군 사회조사표(가구주)		46

※ 별첨 : 통계표

2016년 기준 예천군 사회조사 결과 요약

I 조사개요

- 조사내용 : 5개 부문* 35개 문항(가구원은 27개 문항)
 - * 5개 부문 : 가구와 가족, 교육, 안전, 환경, 문화와 여가
 - 예천군 : 자율항목 4문항 (총39개 항목)
- 조사일시 : 2016. 8. 29. ~ 9. 12(15일간)
- 조사대상 : 도내 15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 총 41천명
 - 예천군 : 관내 40개 표본조사구내 800가구
- 조사방법 : 임시조사원을 통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II 주요 조사결과

[가구와 가족]

- (선호하는 가족형태) 「자녀가 있는 부부」 51.6%, 「부모님과 함께」 17.7%의 순
- (부모와 동거를 선호하는 이유) 「당연한 의무」 76.6%, 「가족간 화합」 13.1%의 순
-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만족한다’ 68.3%로 2년전 대비 증가
- (부모 생활비 제공) 「부모 스스로」 35.2%, 「모든 자녀」 25.7%의 순

[교육]

-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초등 16.9만원, 중학생 22.5만원, 고등학생 24.2만원
- (대학생 등록금 마련방법) 「학생부모 도움」 74.7%, 「장학금」 18.7%, 「대출」 5.1%의 순
- (군내 비문해 인구*) 군내 15세이상 인구의 4.9% 차지
 - * 한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인구
-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초등>대학>중고등학교의 순으로 높음
- (학교교육의 효과) 효과가 있는 곳은 「지식 기술습득」 (64.7%)이 가장 높고, 「생활, 직업, 취업에 활용」 (52.8%)은 가장 낮음

[환경]

- ☐ **(환경상태 평가)** 대기, 녹지환경, 강하천호수 등 지역환경에 대한 평가에 대해 전체 50%이상 긍정적 평가
- ☐ **(환경오염방지 노력)**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는 비율은 2년전에 비해 증가

[안전]

- ☐ **(우리사회 안전상태 변화)** 2년전에 비해 위험해졌고, 2년후에도 위험해질 것
 - ‘안전해졌다’ 비율이 ’14년 41.8%→’16년 21.8%
- ☐ **(우리사회 분야별 안전상태)** 「식량안보」, 「건축물사설물」, 「교통이용」의 순으로 높음
 - 불안하다 비율이 높은 분야 「국가안보」, 「범죄위험」, 「신종전염병」의 순
- ☐ **(야간보행의 두려움)** 사는 동네에 야간보행이 두려운 곳이 있다 17.8%
 - 이유로 「인적 드림」, 「가로등 미설치」, 「우범지역」 등이 꼽힘
- ☐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수입산/가공/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 여전히 불안함
 - ‘안전하다’ 응답비율 수입산식품 17.2%, 가공식품 14.4%, 유전자변형식품 12.0%
- ☐ **(군민들의 평소 준법수준)** ‘평소 스스로 법을 잘 지킨다’ 69.3%
- ☐ **(공공질서 준수수준)** ‘차레자키기’ (61.2%)로 가장 높고, ‘공공장소 정숙’ (34.6%) 가장 낮음
- ☐ **(동네 주민과의 관계)** 동네 사람들과 ‘서로 잘 알고 지낸다’ 72.8%

[문화와 여가]

- ☐ **(문화향유)** 지난 1년간 공연 및 스포츠 관람한 인구 비율은 22.9%
- ☐ **(지역 문화예술시설 만족)** ‘만족한다’ 는 비율은 82.5%
- ☐ **(지역 필요 문화시설)** ‘문화체육센터’ 46.1%, 20대이하는 ‘영화관’ 70.9%
- ☐ **(여행경험)** 국내여행은 43.9%, 해외여행은 10.8%
- ☐ **(선호하는 여가활동)** 시간,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선호하는 활동은 ‘여행’
- ☐ **(생활속 시간압박)** 생활이 바쁘거나 시간부족을 느낀다는 비율은 평일 55.6%, 주말 52.2%
- ☐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유배우자 인구의 절반(63.0%)은 배우자의 직업이 있음
- ☐ **(정보화의 활용)** 군민의 28.3%는 소셜네트워크에 가입
- ☐ **(전자상거래 활용)** TV홈쇼핑을 통한 구매 18.7%, 인터넷 물품구매 17.2%

[예천군 특성항목]

- ☐ (생활 환경 만족도) ‘매우좋다’ 39.9%, ‘매우나쁘다’ 0%
 - ‘매우좋다’ 비율이 ’14년 28.9%→’16년 39.9% 상승
- ☐ (살기좋은 군 만들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점) ‘의료시설’ 22.0%, ‘편리한 교통체계’ 21.1%
- ☐ (군정정보 획득경로) ‘주변지인의 입소문’ 29.1%, ‘예천소식지’ 23.7%
- ☐ (향후 늘려야할 복지시설) ‘건강증진서비스’ 42.8%, ‘노인돌봄서비스’ 20.5%
- ☐ (전통시장 개선사항) ‘교통편의 및 주차시설확보’ 52.6%, ‘주변환경개선’ 18.0%

III 향후 계획

- ☐ 결과 공표 : 2017. 12월초(언론보도, 인터넷 공개)
- ☐ 통계DB 반영 : 2017. 12월중

2016년 기준 예천군 사회조사 결과 비교

I. 가구와 가족

■ (선호하는 가족형태)	<2014>		<2016>
▶ 부모님과 함께	33.2%	↘	17.7%
▶ 1인가구(독신)	9.6%	≈	9.6%
▶ 유자녀부부	39.8%	↗	51.6%
■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이유	<2014>		<2016>
▶ 당연한 의무	81.1%	↘	76.6%
▶ 경제적 도움	1.9%	↗	5.1%
▶ 가족간 화합	11.8%	↗	13.1%
■ (가족관계 만족도) ※ 경상북도 통계	<2014>		<2016>
▶ 배우자와 관계	79.9%	↘	77.3%
▶ 자기부모와 관계	69.5%	↗	72.1%
▶ 전반적 가족관계	57.7%	↗	64.5%
■ (부모 생활비 부담)	<29세이하>		<60세이상>
▶ 장남, 며느리	1.7%	vs	21.5%
▶ 부모님 스스로	93.5%	vs	35.2%

II. 교육

■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2014>		<2016>
▶ 미취학자녀(만원)	6.6	↗	10.1
▶ 초등학생(만원)	30.2	↘	16.9
▶ 중학생(만원)	23.7	↘	22.5
▶ 고등학생(만원)	44.2	↘	24.2
■ (대학교 등록금 마련방법)	<2014>		<2016>
▶ 부모도움	55.6%	↗	74.7%
▶ 대출	12.4%	↘	5.1%
▶ 자녀스스로	7.5%	↘	1.4%
▶ 장학금	24.3%	↘	18.7%
■ (문자해독율) ※ 경상북도 통계	<2014>		<2016>
▶ 비문해자수	98천명	↘	73천명
▶ 15세이상 인구	2,350천명	↗	2,367천명
▶ 비문해율	4.2%	↘	3.1%
■ (학교생활 만족비율)	<교육내용>	<학교시설>	<전반적 생활>
▶ 초등학교	60.8%	66.3%	67.7%
▶ 중고등학교	54.7%	40.8%	46.7%
▶ 대학교	51.2%	52.1%	49.5%

■ (학교교육의 효과)	<효과있다>		<효과없다>
▶ 지식,기술습득	64.7%	vs	3.3%
▶ 인격 형성	60.3%	vs	6.3%
▶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	56.9%	vs	7.2%
▶ 생활, 직업, 취업에 활용	52.8%	vs	9.3%

III. 환경

■ (거주지 환경이 좋다는 비율)	<2014>		<2016>
▶ 대기의 질	62.6%	↗	76.0%
▶ 강, 하천, 호수의 질	57.7%	↗	68.9%
▶ 토양	52.3%	↗	66.2%
▶ 소음, 진동	49.2%	↗	52.9%
▶ 녹지환경	54.9%	↗	60.8%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비율)	<2014>		<2016>
▶ 대중교통 이용	54.8%	↘	52.6%
▶ 재활용품 분리배출	65.9%	↗	74.1%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68.7%	↗	74.0%
▶ 합성세제사용 줄이기	65.1%	↘	63.4%
▶ 1회용품 미사용	67.1%	↘	60.2%
▶ 에너지절약형 제품구입	68.6%	↘	64.4%
▶ 환경 및 자연보호운동 참여	36.1%	↘	32.0%

IV. 안전

■ (우리사회의 전반적 안전상태)	<2014>		<2016>
▶ (2년전과 비교) 안전해졌다	41.8%	↘	21.8%
▶ (2년후 예상) 안전해질 것이다	48.1%	↘	22.0%
■ (우리사회의 분야별 안전상태) - 안전하다 비율	<2014>		<2016>
▶ 국가안보	22.4%	↘	21.0%
▶ 자연재해	24.6%	↗	27.8%
▶ 건축물, 시설물	25.5%	↗	34.4%
▶ 교통이용	25.9%	↗	32.7%
▶ 화재	22.0%	↗	32.4%
▶ 식량안보	31.5%	↗	43.4%
▶ 정보보안	11.0%	↗	17.8%
▶ 신종전염병	10.3%	↗	16.3%
▶ 범죄위험	18.1%	↗	18.8%
■ (야간보행의 두려움)	<2014>		<2016>
▶ 두려운 곳이 있다	14.2%	↗	17.8%
● (원인) 가로등이 없다	57.2%	↘	23.1%
● (원인) 우범지역	6.5%	↗	7.1%
● (원인) 인적드림	35.9%	↗	68.0%

■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 안전하다는 비율

▶ 친환경식품	51.6%	↗	74.1%
▶ 국내산식품	50.2%	↗	76.1%
▶ 수입산식품	4.2%	↗	17.2%
▶ 가공식품	3.4%	↗	14.4%
▶ 유전자변형식품	2.3%	↗	12.0%

■ 준법수준 : 잘지킨다(아주 잘지킨다 + 비교적 잘지킨다) 비율

▶ 자신의 평소 준법수준	<2014> 77.6%	↘	<2016> 69.3%
▶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공질서 준수수준			
● 차레지키기	49.7%	↗	61.2%
● 거리환경질서	34.6%	↗	43.6%
● 보행질서	36.0%	↗	41.0%
● 교통질서	32.2%	↗	38.9%
● 공공장소 금연	40.3%	↗	43.5%
● 공공장소 정숙	32.0%	↗	34.6%

■ (일상생활상 두려움)

▶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려움> 7.0%	vs	<두렵지않음> 80.6%
▶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7.4%	vs	78.2%
▶ 혼자 택시, 지하철을 탈 때	6.8%	vs	72.6%

■ (범죄피해 두려움)

▶ 나 자신	<두려움> 16.2%	vs	<두렵지않음> 66.3%
▶ 배우자	19.1%	vs	39.3%
▶ 자녀	48.6%	vs	24.2%
▶ 부모	21.2%	vs	15.6%

■ (동네사람들에 대해 평소 느낀 점)

▶ 서로 잘 알고 지낸다	<그렇다> 72.8%	vs	<그렇지 않다> 11.1%
▶ 동네일을 자주 이야기한다	65.7%	vs	17.6%
▶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다	67.9%	vs	13.8%
▶ 동네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63.8%	vs	18.1%
▶ 동네아이들을 보호한다	84.6%	vs	2.1%
▶ 범죄발생시 신고한다	87.9%	vs	2.3%
▶ 범죄순찰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49.4%	vs	30.8%

V. 문화와 여가

■ (지난 1년간 공연 및 스포츠관람)

▶ 경험한 적 있다	<2014> 22.9%	≈	<2016> 22.9%
▶ 만족한다 비율	77.2%	↗	82.5%

■ (문화예술행사 정보입수 방법)

▶ TV	<2014> 14.1%	↗	<2016> 19.2%
▶ 인터넷	52.6%	↘	29.6%
▶ 입소문	19.5%	↗	36.6%
▶ 기타	1.4%	↗	14.6%

■ (문화예술시설 만족도)	<2014> 20.1%		<2016> 33.0%
■ (지역에서 필요한 문화예술시설)	<2014>		<2016>
▶ 공연장	17.0%		29.5%
▶ 영화관	31.4%		39.4%
▶ 야외음악당, 박물관	7.2%		3.3%
▶ 도서관	9.3%		5.2%
▶ 복지회관	39.4%		42.4%
▶ 문화체육센터	54.9%		46.1%
▶ 주민자치센터	30.4%		21.2%
■ (지난 1년간 여행경험)	<국내여행>		<해외여행>
▶ 여행경험이 있다	43.9%	vs	10.8%
■ (여가생활)	<만족한다>		<만족않음>
▶ 여가생활만족도	33.3%	vs	18.5%
	<1위>	<2위>	<3위>
▶ 여가생활 불만족사유	건강문제	시간부족	경제적부담
■ (희망 여가활용방법)	<2014>		<2016>
▶ 여행	50.0%		49.0%
▶ 문화예술관람	17.5%		12.9%
▶ 스포츠활동	12.4%		8.5%
▶ 휴식	26.8%		30.0%
▶ 사교관련일	18.1%		29.5%
■ (정보화의 활용)	<2014>		<2016>
▶ 이메일	26.8%		21.4%
▶ 홈페이지	6.8%		4.6%
▶ 블로그	4.9%		3.0%
▶ 인터넷동호회가입	7.0%		4.0%
▶ 소셜네트워크	26.0%		28.3%
■ (전자상거래 활용)	<2014>		<2016>
▶ TV홈쇼핑	15.3%		18.7%
▶ 증권	2.1%		1.7%
▶ 물품구매	16.5%		17.2%
▶ 예약 및 예매	9.5%		12.5%

VI. 예천군 특성항목

■ (생활 환경 만족도)		<2014>		<2016>
▶ 매우좋다		29.0%	↗	39.8%
▶ 약간좋다		34.1%	↗	39.3%
▶ 약간나쁘다		5.6%	↘	2.2%
■ (살기좋은 예천군 만들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점		<2014>		<2016>
▶ 우수한 의료시설		21.9%	↗	22.0%
▶ 편리한 교통체계		7.5%	↗	21.1%
▶ 취업난 해소		24.2%	↘	18.3%
■ (군정 정보 획득 경로)		<2014>		<2016>
▶ 주변 지인의 입소문		26.5%	↗	29.1%
▶ 예천 소식지		30.7%	↘	23.7%
▶ TV뉴스/신문기사		14.6%	↗	17.0%
■ (향후 늘려야 할 복지시설)		<2014>		<2016>
▶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41.4%	↗	42.8%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25.0%	↘	20.5%
▶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17.2%	↗	19.6%
■ (전통시장 개선사항)		<2014>		<2016>
▶ 교통편의 및 주차시설 확보		58.3%	↘	52.6%
▶ 주변 환경개선		6.4%	↗	18.0%
▶ 볼거리 행사 및 쉼터 확충		4.8%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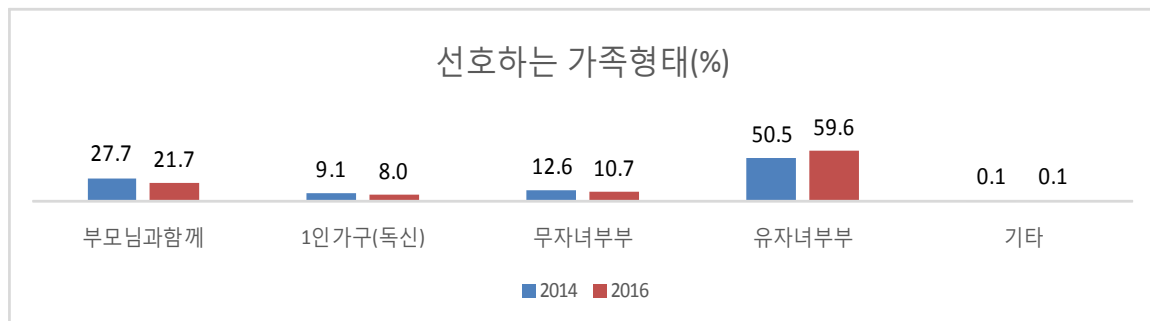
2016년 기준 경상북도 · 예천군 사회조사 결과

I 가구와 가족

1. 선호하는 가족형태

「부모님과 함께」를 선택한 비율은 21.7%로 2년전 대비 감소한데 비해 「유자녀 부부」를 원하는 비율은 증가하여 독립가족에 대한 선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 평소 선호하는 가족형태로 「유자녀 부부」 59.6%가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부모님과 함께」21.7%, 「무자녀부부」 10.7%, 「1인가구(독신)」8.0%의 순
- '14년에 비해 「유자녀부부」를 선호하는 비율은 9.1%p 증가한데 비해 「부모님과 함께」를 선택한 비율은 6.0%p 감소
- 성별로 응답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부모님과 함께」를 응답한 남자의 비율이 25.3%로 여자 18.5%보다 6.8%p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선호하는 가족형태는, 「부모님과 함께」는 29세이하 33.4%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독신)」도 29세이하 13.7%, 「유자녀부부」 30~39세 71.2%, 「무자녀부부」 60세이상 15.2%로 나타남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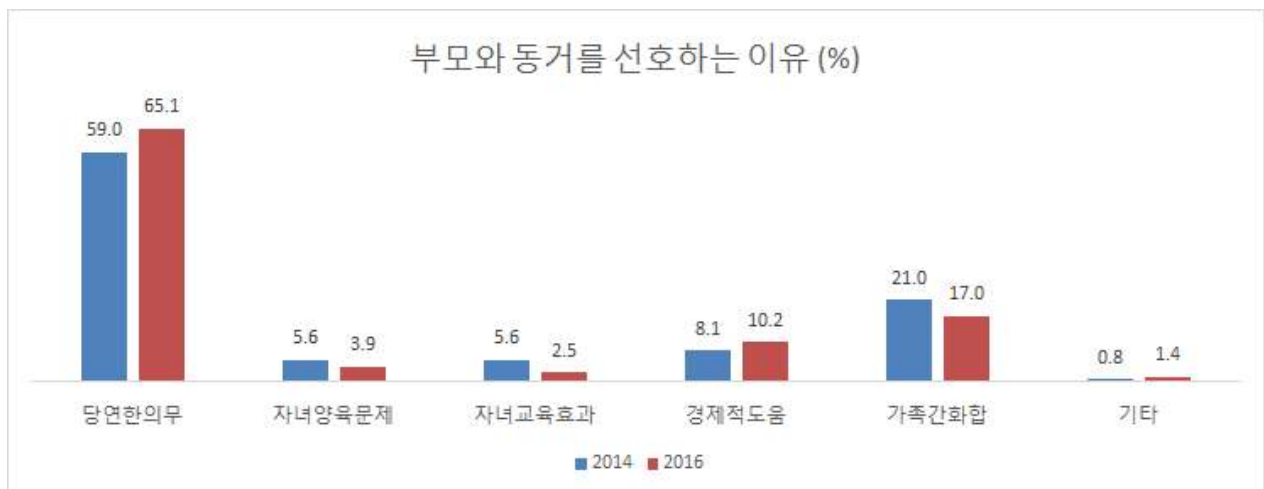
구분	부모님과함께	1인가구(독신)	무자녀부부	유자녀부부	기타
2014	27.7	9.1	12.6	50.5	0.1
2016	21.7	8.0	10.7	59.6	0.1
(증감)	-6.0	-1.1	-2.0	9.1	-0.1
남	25.3	6.3	10.5	57.9	0.1
여	18.5	9.5	10.8	61.1	0.1
29세이하	33.4	13.7	5.9	46.9	0.1
30-39세	15.7	8.2	4.9	71.2	0.0
40-49세	17.3	6.5	5.6	70.6	0.1
50-59세	19.9	6.5	11.3	62.3	0.1
60세이상	22.4	7.6	15.2	54.7	0.0

2.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

「부모와 함께」 사는 이유로 「당연한 의무」, 「가족간 화합」, 「경제적인 이유」의 순으로 높음

□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이유로 「당연한 의무」가 65.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간 화합」 17.0%, 경제적 도움 10.2%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보면, 「당연한 의무」는 60세이상(77.1%)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양육문제」는 30~39세(11.6%)에서, 「경제적 도움」은 29세이하(23.7%)에서, 「가족간 화합」도 29세이하(26.9%)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년전에 비해 「당연한 의무」라고 응답한 비율은 6.1%p 증가한데 비해 「가족간 화합」 4.0%p 감소하였고, 「경제적 도움」은 2.1%p 증가함



(단위 : %, %p)

구분	당연한 의무	자녀양육문제	자녀교육효과	경제적도움	가족간화합	기타
2014	59.0	5.6	5.6	8.1	21.0	0.8
2016	65.1	3.9	2.5	10.2	17.0	1.4
(증감)	6.1	-1.7	-3.1	2.1	-4	0.6
29세이하	38.3	6.0	2.6	23.7	26.9	2.5
30-39세	45.5	11.6	1.1	20.4	19.6	1.9
40-49세	65.4	4.9	2.1	10.6	15.6	1.4
50-59세	72.0	2.3	2.9	6.0	16.3	0.6
60세이상	77.1	2.0	2.6	4.2	13.0	1.1

3.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와 「약간 만족한다」를 합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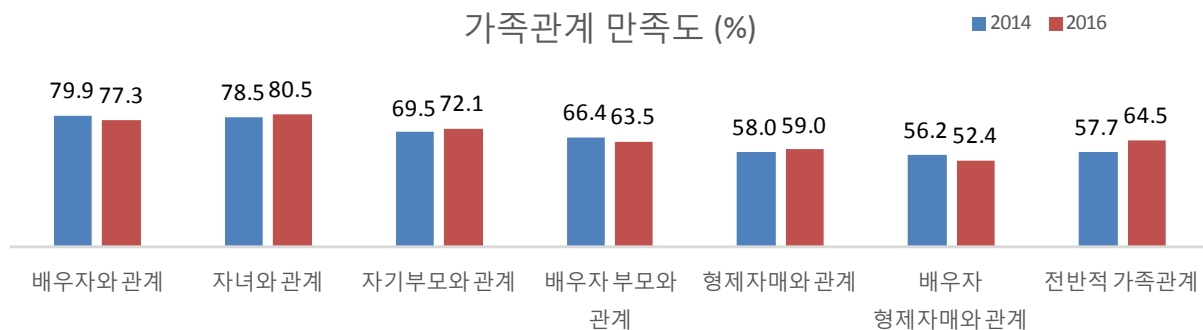
「전반적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64.5%로 2년전에 비해 증가함

□ 「전반적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64.5%로, 2년전에 비해 6.8%p 증가

-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족한다' 비율은 감소한 반면,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가족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비율은 증가함

□ '만족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가족관계는 「자녀와 관계」 80.5%, 가장 낮은 관계는 「배우자 형제자매와 관계」로 52.4%로 나타남

- 「자녀와 관계」에 이어 「배우자와 관계」 77.3%, 「자기부모와 관계」 72.1%의 순
- 「배우자 형제자매와 관계」에 이어 「형제자매와 관계」 59.0%, 「배우자 부모와 관계」 63.5%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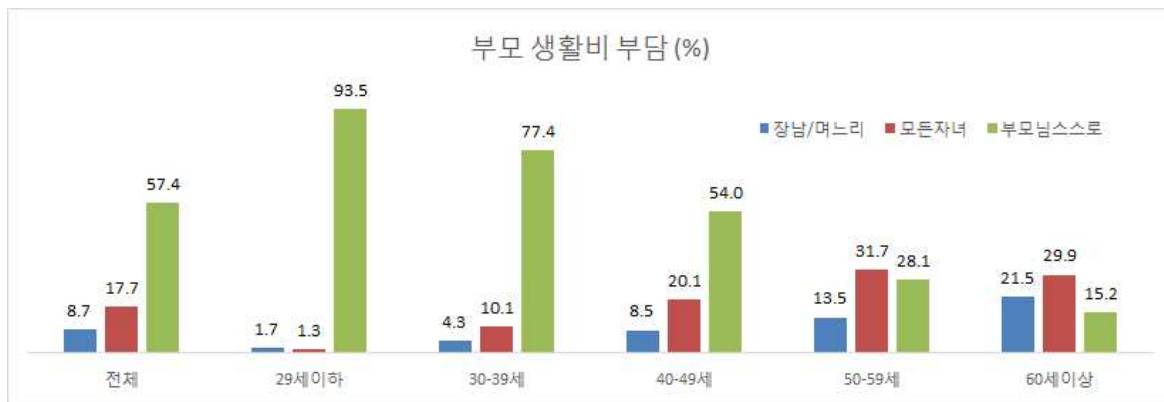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배우자와 관계	자녀와 관계	자기부모와 관계	배우자 부모와 관계	형제자매와 관계	배우자 형제자매와 관계	전반적 가족관계
2014	79.9	78.5	69.5	66.4	58.0	56.2	57.7
2016	77.3	80.5	72.1	63.5	59.0	52.4	64.5
(증감)	-2.6	2	2.6	-2.9	1	-3.8	6.8
29세이하	82.0	83.2	78.4	68.6	74.3	63.4	75.5
30-39세	85.0	89.3	77.0	71.5	71.3	66.1	73.5
40-49세	81.7	86.3	71.3	65.2	62.6	59.2	69.1
50-59세	77.1	82.0	68.3	60.9	57.6	52.9	64.4
60세이상	73.0	76.2	60.7	53.7	50.3	46.0	57.3
100만원미만	71.2	71.8	63.9	52.2	50.6	44.3	54.4
100-200만원	74.1	75.1	62.8	57.1	51.6	46.3	57.4
200-300만원	81.2	82.1	71.3	65.0	58.5	56.2	66.3
300-400만원	83.5	86.3	74.4	67.7	62.1	59.4	71.3
400-500만원	85.1	87.0	74.7	69.4	63.5	61.0	74.0
500만원이상	88.3	90.0	77.6	72.1	68.7	66.0	77.4

4. 부모 생활비 부담

현재 부모의 생활비는 「부모 스스로」 충당한다는 응답비율이 57.4%로 가장 높음

- 현재 부모가 살아 계신 경우, 부모 생활비는 「부모님 스스로」(57.4%) 해결한다는 비율이 높았고, 이어 「모든 자녀」 17.7%, 「장남, 며느리」 8.7%의 순으로 비율이 높음
- 29세이하 연령대는 「부모님 스스로」가 93.5%를 차지하고 있고, 30~39세 응답자의 부모님도 생활비 부담을 주로 「부모님 스스로」(77.4%)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가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되는 40~49세 응답자는 「부모님 스스로」가 54.0%로 감소하는 등 연령이 증가하면서 「부모님 스스로」 비율이 감소함
 - 응답자 연령이 60세 이상은 「부모님 스스로」가 15.2%를 차지하는 반면 「장남, 며느리」 21.5%, 「모든 자녀 29.9%」를 차지함



(단위 : %)

구분	장남/며느리	아들/며느리	딸/사위	모든 자녀	부모님 스스로	기타	정부/사회단체	가족과 정부/사회단체	기타
전연령	8.7	8.2	1.5	17.7	57.4	6.6	2.9	3.6	0.1
29세이하	1.7	1.6	0.7	1.3	93.5	1.2	1.0	0.2	0.1
30-39세	4.3	4.6	1.5	10.1	77.4	2.2	1.1	1.0	0.1
40-49세	8.5	9.2	1.6	20.1	54.0	6.6	2.3	4.3	0.0
50-59세	13.5	13.1	1.9	31.7	28.1	11.8	4.7	7.0	0.1
60세이상	21.5	16.1	2.2	29.9	15.2	15.1	7.9	7.0	0.2

II 교육

5. 월평균 사교육비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 35.5만원, 중학생 39.1만원, 고등학생 37.0만원으로 나타남

□ '16년 도내 가구의 월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중학생 39.1만원, 고등학생 37.0만원, 초등학생 35.5만원, 미취학자녀 14.0만원으로 나타남

- 사교육비는 2년전에 비해 고등학생은 6.4만원, 중학생 7.4만원, 초등학생 6.1만원, 미취학자녀 3.4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생 사교육비는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는 52.1만원을 지출한 반면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는 20.2만원을 지출

- 중학생 사교육비는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은 48.9만원을 지출하는 반면,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 가구는 24.5만원을 지출하여 약 2배의 차가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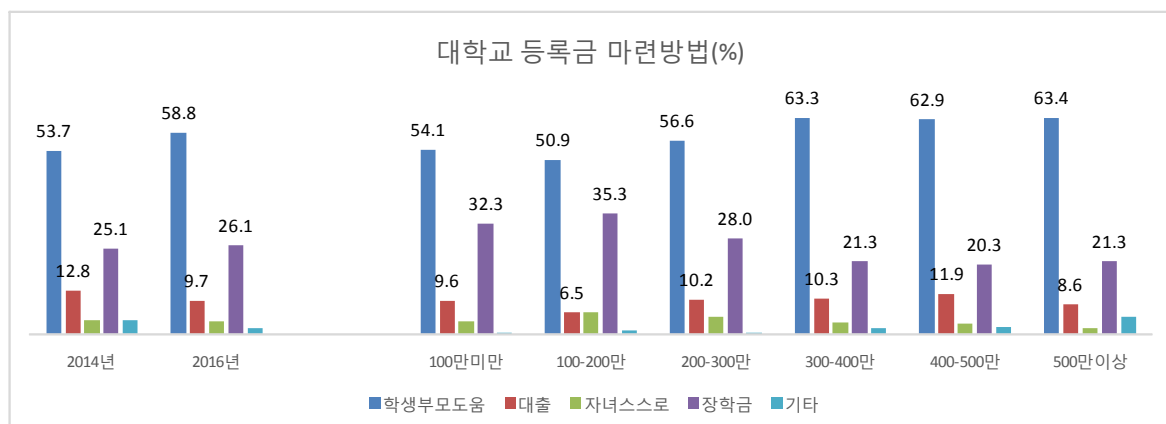
(단위 : 만원)

구분	미취학자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14	10.6	29.4	31.7	30.6
2016	14.0	35.5	39.1	37.0
(증감)	3.4	6.1	7.4	6.4
100만원미만	12.4	26.9	24.5	20.2
100-200만원	11.9	25.5	27.5	25.1
200-300만원	13.2	31.4	35.5	29.3
300-400만원	13.7	36.2	40.1	36.8
400-500만원	14.8	39.3	41.6	40.7
500만원이상	18.0	46.5	48.9	52.1

6. 대학교 등록금 마련방법

등록금 마련방법 : 「학생부모 도움」 58.8%, 「장학금」 26.1%, 「대출」 9.7%

- 대학생이 있는 가구의 대학교 등록금 마련방법으로는 「학생의 부모도움」 5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학금」 26.1%, 「대출」 9.7%의 순으로 나타남
- 2년전 대비 「학생의 부모도움」은 5.1%p 증가한데 비해 「대출」은 3.1%p 감소함
 - 「학생의 부모도움」은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미만은 54.1%인데 비해 500만원 이상은 63.4%로 나타나 가구소득 증가할수록 대학교 등록금 부모의존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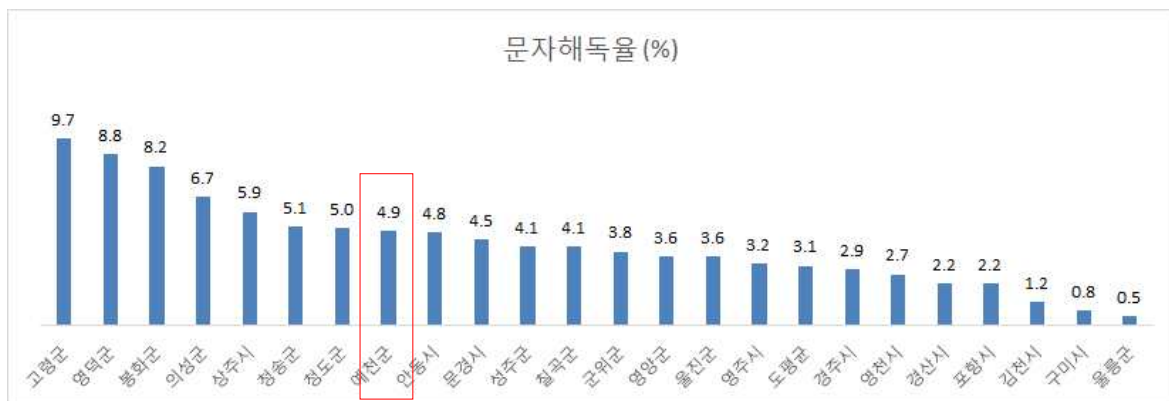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학생부모도움	대출	자녀스스로	장학금	기타
2014년	53.7	12.8	4.2	25.1	4.2
2016년	58.8	9.7	3.8	26.1	1.6
(증감)	5.1	-3.1	-0.4	1	-2.6
100만원미만	54.1	9.6	3.6	32.3	0.4
100-200만원	50.9	6.5	6.3	35.3	1.0
200-300만원	56.6	10.2	5.1	28.0	0.0
300-400만원	63.3	10.3	3.5	21.3	1.6
400-500만원	62.9	11.9	3.0	20.3	2.0
500만원이상	63.4	8.6	1.7	21.3	5.1

7. 문자해독율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문해인구는 73천명, 도내 15세이상 237천명의 3.1%를 차지하여 2년전에 비해 1.1%p 감소함

- '16년 한글을 해독하지 못하는 인구(=비문해인구)는 73천명으로 도내 15세이상 인구 2,367천명의 3.1%(=비문해율)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년전에 비해 비문해인구는 24.8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15세이상 인구의 비문해율은 1.1%p 감소한 3.1%로 나타남



(단위 :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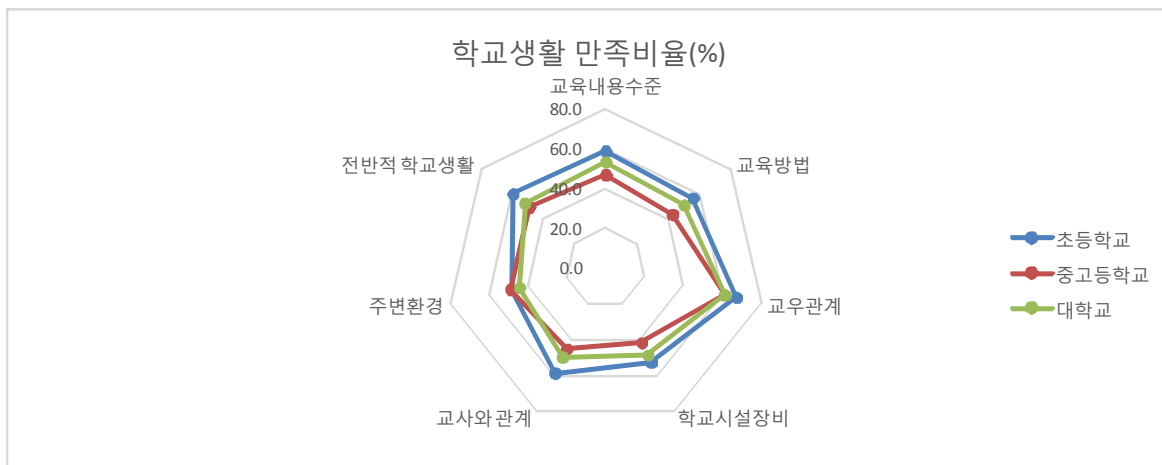
구분	비문해가구원수	15세 이상인구	비문해율
2014	97,875	2,350,484	4.2
2016	73,078	2367,373	3.1
(증감)	-24,797	16,889	-1.1
포항시	9,691	447,470	2.2
경주시	6,678	229,908	2.9
김천시	1,518	125,106	1.2
안동시	7,148	147,959	4.8
구미시	2,771	350,537	0.8
영주시	3,119	96,987	3.2
영천시	2,418	91,054	2.7
상주시	5,396	91,862	5.9
문경시	2,984	66,967	4.5
경산시	4,886	223,907	2.2
군위군	872	22,782	3.8
의성군	3,375	50,613	6.7
청송군	1,244	24,449	5.1
영양군	582	16,274	3.6
영덕군	3,174	35,923	8.8
청도군	2,045	40,657	5.0
고령군	2,994	31,011	9.7
성주군	1,699	41,649	4.1
칠곡군	4,235	104,349	4.1
예천군	2,034	41,740	4.9
봉화군	2,527	30,748	8.2
울진군	1,643	46,155	3.6
울릉군	46	9,266	0.5

8. 학교생활 만족비율*

* 만족비율 = “매우 만족한다” + “약간 만족한다”

학교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비율은 초등학교, 대학교, 중고등학교의 순으로 높음

- 「전반적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비율은 초등학교가 59.5%로 가장 높고 이어 대학교 51.9%, 중고등학교 48.9%의 순으로 나타나 중고등학교에 대한 만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는 「교우관계」에서 만족비율이 67.3%로 가장 높은 반면 「주변환경」은 48.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중고등학교는 「교우관계」 61.3%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만족비율이 50%미만, 특히 「학교시설, 장비」는 41.8%를 기록하여 가장 낮음
 - 대학교는 「교우관계」가 61.4%로 가장 높은 반면, 「주변환경」은 44.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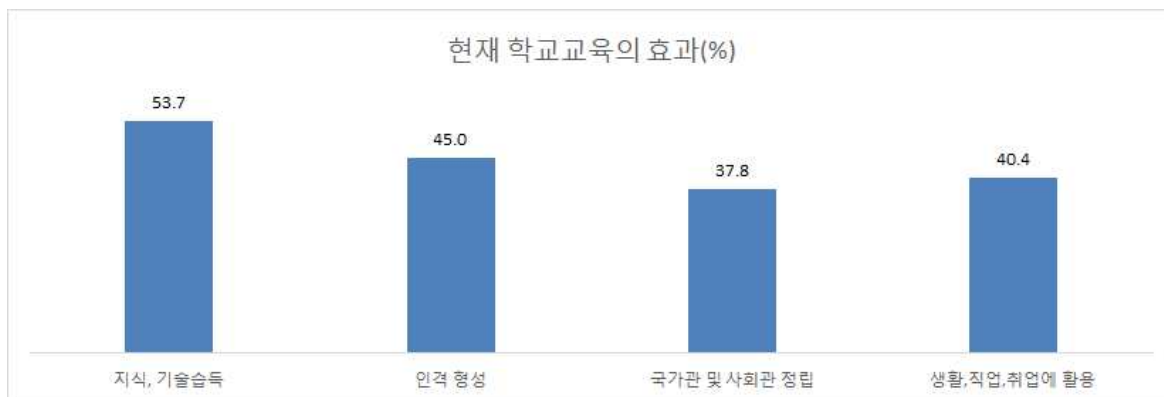
구분	교육내용수준	교육방법	교우관계	학교시설장비	교사와 관계	주변환경	전반적 학교생활
초등학교	58.5	56.1	67.3	52.7	58.7	48.7	59.5
중고등학교	46.7	42.9	61.3	41.8	45.3	48.9	48.9
대학교	53.1	50.3	61.4	48.7	49.8	44.3	51.9

9. 현재 학교교육의 효과*

* 효과있다= “매우 효과있다” + “약간 효과있다”

학교교육이 「지식·기술 습득」에 '효과있다'는 비율이 53.7%로 상대적으로 높으나, 「생활, 직업, 취업에 활용」에는 40.4%만이 '효과있다'고 응답

- 학교교육의 분야 중 「지식, 기술습득」에 현재 학교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7%,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6%로 나타남
- 「인격형성」에 현재 학교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0%,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1.2%로 나타남
 -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에 현재 학교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8%,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3.2%로 나타남
 - 「생활, 직업, 취업에 활용」에 현재 학교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4%,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3.6%로 나타남
-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해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 보다는 부정적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구분	지식, 기술습득		인격 형성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		생활, 직업, 취업에 활용	
	효과있다	효과없다	효과있다	효과없다	효과있다	효과없다	효과있다	효과없다
2016	53.7	6.6	45.0	11.2	37.8	13.2	40.4	13.6
초졸이하	52.3	3.1	48.0	5.4	43.0	5.0	45.0	5.4
중졸	56.8	4.4	49.1	7.6	42.6	8.5	47.4	8.0
고졸	55.6	6.0	47.8	10.8	41.2	10.8	43.5	10.9
대졸이상	52.6	7.9	42.9	13.1	35.0	16.1	37.2	16.9

10.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에 대한 평가

대기, 녹지환경, 강 하천 호수의 환경상태에 대해 인구의 절반이상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반면, 토양,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부정적으로 평가함

-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에 대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기의 질」 58.0%, 「녹지환경」 53.0%, 「강,하천,호수의 질」 51.5%, 「토양」 47.7%, 「소음,진동」 44.0%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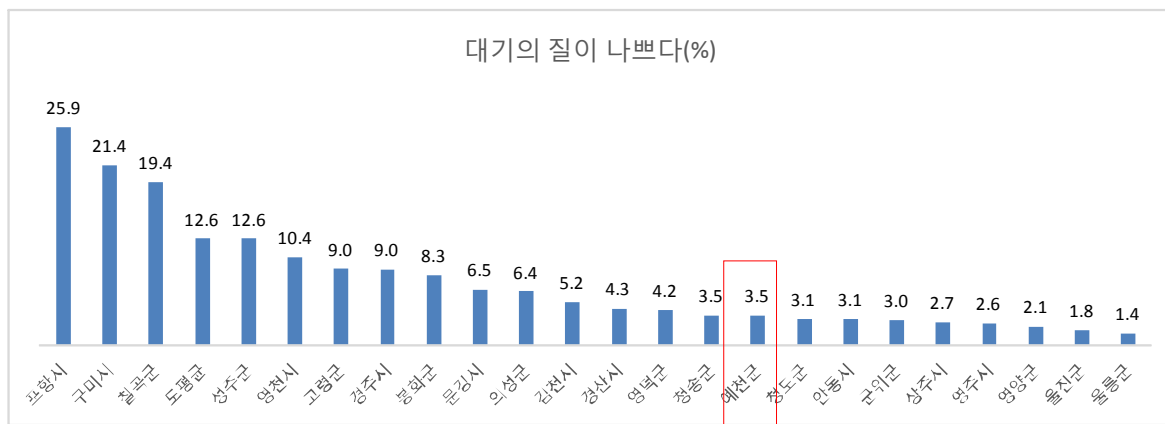
* 좋다= 매우 좋다 + 약간 좋다

- 2년전과 비교하면 좋아졌다는 비율은 「소음,진동」 2.2%p, 「토양」 4.1%p, 「강,하천,호수의 질」 3.0%p, 「대기의질」 2.8%p, 「녹지환경」 1.1%p의 순으로 증가함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에 대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음,진동」 20.8%, 「강,하천,호수의 질」 14.6%, 「토양」 13.9%, 「녹지환경」 12.7%, 「대기의 질」 12.6%의 순으로 나타남

* 나쁘다= 매우 나쁘다 + 약간 나쁘다

- 2년전과 비교하면 나빠졌다는 비율은 대부분 큰 변동이 없으나 「토양」은 1.3%p 감소한데 비해 「녹지환경」은 1.4%p 증가함



(단위 : %, %p)

구분	대기의 질		강,하천,호수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2014년	55.2	12.2	48.5	14.1	43.6	15.2	41.8	21.0	51.9	11.3
2016년	58.0	12.6	51.5	14.6	47.7	13.9	44.0	20.8	53.0	12.7
(증감)	2.8	0.4	3.0	0.5	4.1	-1.3	2.2	-0.2	1.1	1.4

11. 환경오염 방지노력*

* 노력한다= “매우 노력한다” + “조금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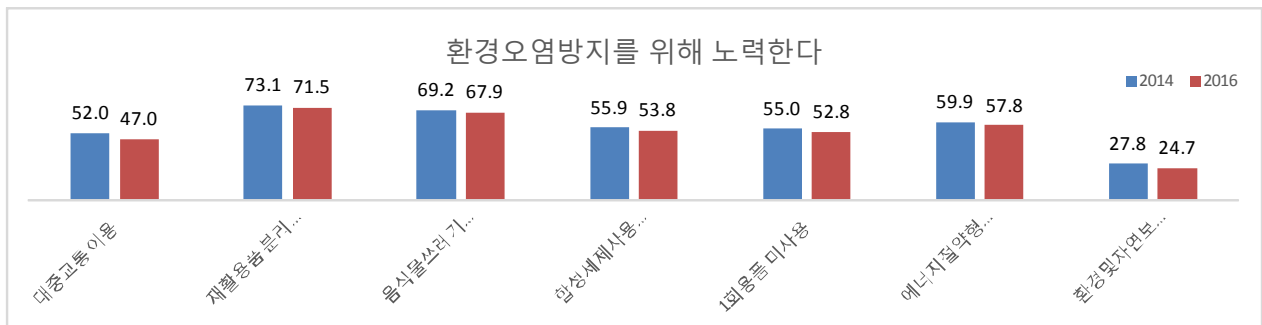
환경보호를 위해 다양한 실천활동을 한다는 인구의 비율이 2년전에 비해 감소하였고, 특히 '대중교통 이용'은 2년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감소함

□ 생활속 환경오염 방지노력 중에서 '노력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활동은 「재활용품 분리배출」로 전체 71.5%가 응답

- 2년전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그중 「대중교통 이용」은 5.0%p 감소하여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이어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가 3.1%p 감소함

□ '노력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은 활동은 「환경보호활동에 참여」로 전체의 43.6%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노력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은 활동으로 「대중교통 이용」 23.6%, 「에너지 절약형 제품구입」 11.8%의 순으로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p)

구분	대중교통 이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합성세제 사용줄이기		
	노력한다	보통	노력않음	노력한다	보통	노력않음	노력한다	보통	노력않음	노력한다	보통	노력않음
2014년	52.0	33.3	18.3	73.1	22.7	4.3	69.2	25.7	5.1	55.9	36.0	8.2
2016년	47.0	30.7	23.6	71.5	23.4	5.1	67.9	26.5	5.6	53.8	37.2	9.0
(증감)	-5.0	-2.6	5.3	-1.6	0.7	0.8	-1.3	0.8	0.5	-2.1	1.2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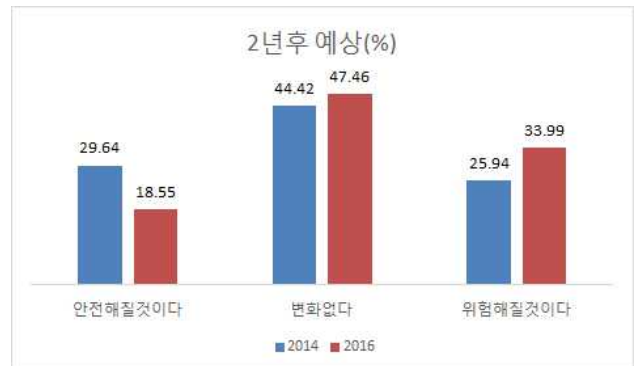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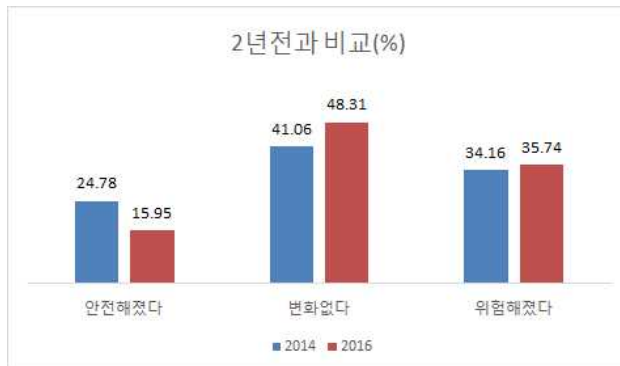
구분	1회용품 미사용			에너지절약형 제품 구입			환경및자연보호운동참여		
	노력한다	보통	노력않음	노력한다	보통	노력않음	노력한다	보통	노력않음
2014년	55.0	35.7	8.2	59.9	29.7	10.4	27.8	33.0	39.2
2016년	52.8	33.7	10.3	57.8	30.4	11.8	24.7	31.7	43.6
(증감)	-2.2	-2.0	2.1	-2.1	0.7	1.4	-3.1	-1.3	4.4

IV 안전

12. 우리사회의 안전상태 변화

우리사회 안전이 「위험해졌다」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안정상태가 「위험해질 것이다」라는 비율도 증가하여 우리사회 안전상태에 대해 비관적 시각이 증가

- 2년전과 비교하여 우리사회가 「안전해 졌다」는 비율은 16.0%인데 비해 「위험해졌다」는 비율은 35.7%로 현재의 안전상태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이 증가함
 - 「안전해졌다」는 비율은 8.8%p 감소한데 비해 「위험해졌다」는 비율은 1.5%p 증가함
- 2년후에 우리사회가 「안전해 질 것이다」는 응답비율은 18.6%인데 비해 「위험해 질 것이다」라는 비율은 34.0%로 앞으로 사회가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봄
 - 2년전 응답자료와 비교해도 「안전해질 것이다」는 비율은 11.0%p 감소한데 비해 「위험해질 것이다」는 비율은 8.1%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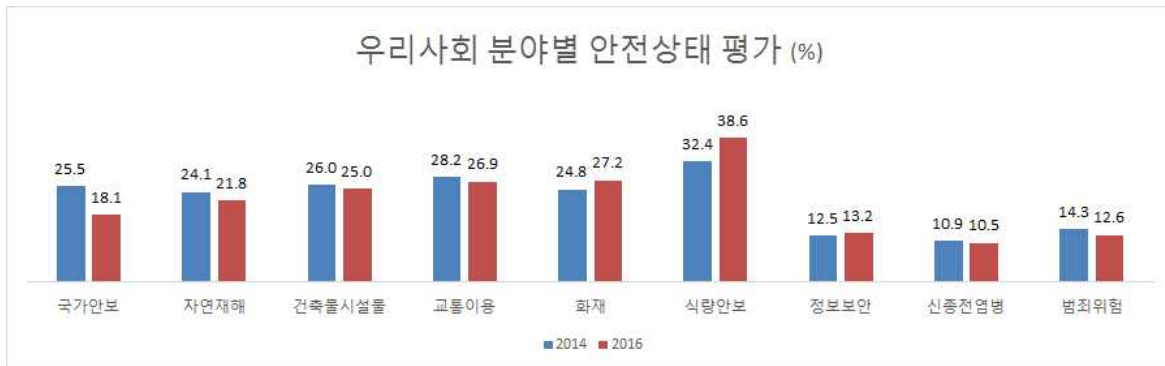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2년전과 비교			2년후 예상		
	안전해졌다	변화없다	위험해졌다	안전해질것이다	변화없다	위험해질것이다
2014	24.8	41.1	34.2	29.6	44.4	25.9
2016	16.0	48.3	35.7	18.6	47.5	34.0
(증감)	-8.8	7.2	1.5	-11.0	3.1	8.1

13. 우리사회 분야별 안전상태 평가

우리사회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식량안보」, 「화재」, 「교통이용」,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신종전염병」, 「범죄위험」, 「국가안보」의 순

- 도민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식량안보」 > 「화재」 > 「교통이용」 > 「건축물시설물」 > 「자연재해」 > 「국가안보」 > 「정보보안」 > 「범죄위험」 > 「신종전염병」의 순
 - 2년전과 비교하여 '안전하다'는 비율이 증가한 분야는 「화재」 2.4%p, 「식량안보」 6.2%p, 「정보보안」 0.7%p로 나타났고
 - '안전하다'는 비율이 감소한 분야는 「국가안보」 7.4%p, 「자연재해」 2.3%p, 「정보보안」 0.7%p로 나타남
- 도민들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신종전염병」 > 「범죄위험」 > 「국가안보」 > 「정보보안」 > 「자연재해」 > 「건축물시설물」 > 「교통이용」 > 「화재」 > 「식량안보」의 순
 - 2년전과 비교하여 '불안하다'는 비율이 증가한 분야는 「국가안보」 15.7%p, 「범죄위험」 7.9%p, 「신종전염병」 6.1%p, 「자연재해」 5.1%p로 나타났고
 - '불안하다'는 비율이 감소한 분야는 「화재」 -0.3%p, 「식량안보」 -1.3%p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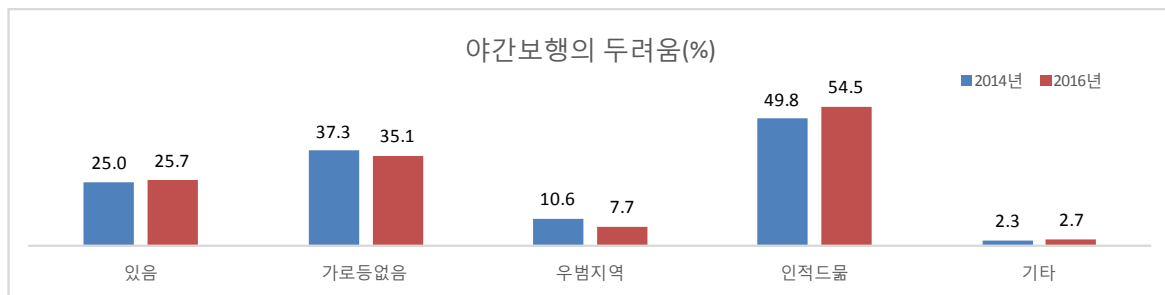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국가안보		자연재해		건축물시설물		교통이용		화재		식량안보		정보보안		신종전염병		범죄위험	
	안전하다	불안하다	안전하다	불안하다	안전하다	불안하다	안전하다	불안하다	안전하다	불안하다	안전하다	불안하다	안전하다	불안하다	안전하다	불안하다	안전하다	불안하다
2014년	25.5	34.9	24.1	29.8	26.0	20.3	28.2	17.0	24.8	18.5	32.4	18.5	12.5	46.8	10.9	53.0	14.3	46.2
2016년	18.1	50.6	21.8	34.9	25.0	22.4	26.9	19.7	27.2	18.2	38.6	17.2	13.2	48.0	10.5	59.1	12.6	54.1
(증감)	-7.4	15.7	-2.3	5.1	-1.0	2.1	-1.3	2.7	2.4	-0.3	6.2	-1.3	0.7	1.2	-0.4	6.1	-1.7	7.9

14. 야간보행의 두려움과 대처방법 ※ 야간보행의 두려움은 사회의 치안상태에 대한 국제적 통용지표.

‘야간보행에 두려운 곳이 있다’는 비율은 25.7%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인적 드물」, 「가로등 미설치」, 「우범지역이므로」 등이 꼽힘

- ‘집근처에 야간보행이 두려운 곳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7%로 2년전에 비해 큰 변동이 없음
- 야간보행이 두려운 이유로, 「인적 드물」이 54.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로등 미설치」 35.1%, 「우범지역이므로」 7.7%의 순
 - 2년전과 비교하면, 「가로등 미설치」는 2.2%p, 「우범지역」 2.9%p 등은 감소하였으나 「인적 드물」은 4.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야간보행이 두려울 경우 대처방법으로는 「그냥 다님」이 59.9%로 가장 높고 이어 「피해다님」 14.4%, 「지인과 동행」 13.8%, 「택시이용」 8.5%, 「호신도구 소지」 0.6%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p)

구분	있음	가로등없음	우범지역	인적드물	기타
2014년	25.0	37.3	10.6	49.8	2.3
2016년	25.7	35.1	7.7	54.5	2.7
(증감)	0.7	-2.2	-2.9	4.7	0.4
남	18.7	37.5	7.6	51.6	3.3
여	31.8	33.9	7.7	56.0	2.4

구분	그냥다님	피해다님	택시이용	호신도구소지	지인과동행	기타
2014년	60.2	14.3	8.5	0.3	14.2	2.5
2016년	59.9	14.4	8.5	0.6	13.8	2.8
(증감)	-0.3	0.1	0	0.3	-0.4	0.3
남	66.0	13.2	7.2	0.7	10.5	2.4
여	56.8	15.1	9.1	0.6	15.4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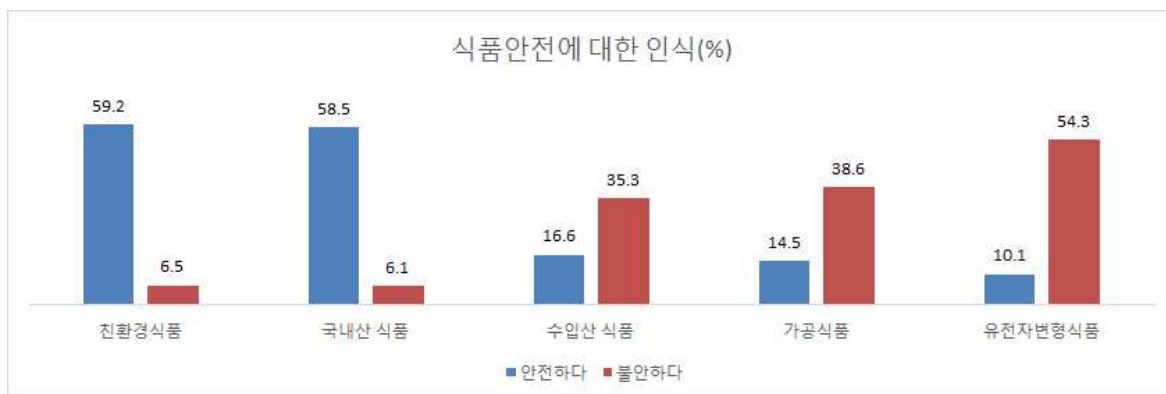
15.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 안전하다 = 매우 안전하다 + 약간 안전하다 비율

수입산식품, 가공식품,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년전과 마찬가지로 매우 낮아 이들 식품에 대해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입산 식품」, 「가공식품」, 「유전자 변형식품(GMO)」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년전과 마찬가지로 10%대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수입산 식품 등 식품전반에 걸쳐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감소함
- 「친환경식품」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저이하 68.9%, 대졸이상 55.4%로 학력이 높을수록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p)

구분	친환경식품		국내산 식품		수입산 식품		가공식품		유전자변형식품	
	안전하다	불안하다	안전하다	불안하다	안전하다	불안하다	안전하다	불안하다	안전하다	불안하다
2014	54.5	7.9	44.3	14.4	11.6	52.8	8.5	51.3	5.9	64.9
2016	59.2	6.5	58.5	6.1	16.6	35.3	14.5	38.6	10.1	54.3
(증감)	4.7	-1.4	14.2	-8.3	5	-17.5	6	-12.7	4.2	-10.6
초저이하	68.9	3.6	70.2	2.9	18.9	32.7	15.7	35.1	11.5	48.6
중졸	66.3	5.4	67.3	5.0	17.3	36.9	14.1	39.4	10.4	54.1
고졸	61.4	8.3	62.0	7.9	18.1	38.1	14.9	41.1	10.7	55.7
대졸이상	55.4	6.8	53.6	6.6	15.7	34.6	14.3	38.4	9.8	54.9

16. 도민들의 평소 준법수준*

※ 법을 잘 지킨다 = 아주 잘 지킨다 + 비교적 잘 지킨다

‘평소 스스로 법을 잘 지킨다’는 비율은 76.8%로 높게 나타남

□ 도민들의 평소 자기자신의 준법수준에 대해 ‘아주 잘지킴’ 23.8%, ‘비교적 잘 지킴’ 53.0%로 응답하여 잘 지킨다는 비율이 76.8%로 나타남

- 시군별로는 영양군, 봉화군, 의성군이 잘 지킨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주군, 청도군, 영주시는 상대적으로 잘 지킨다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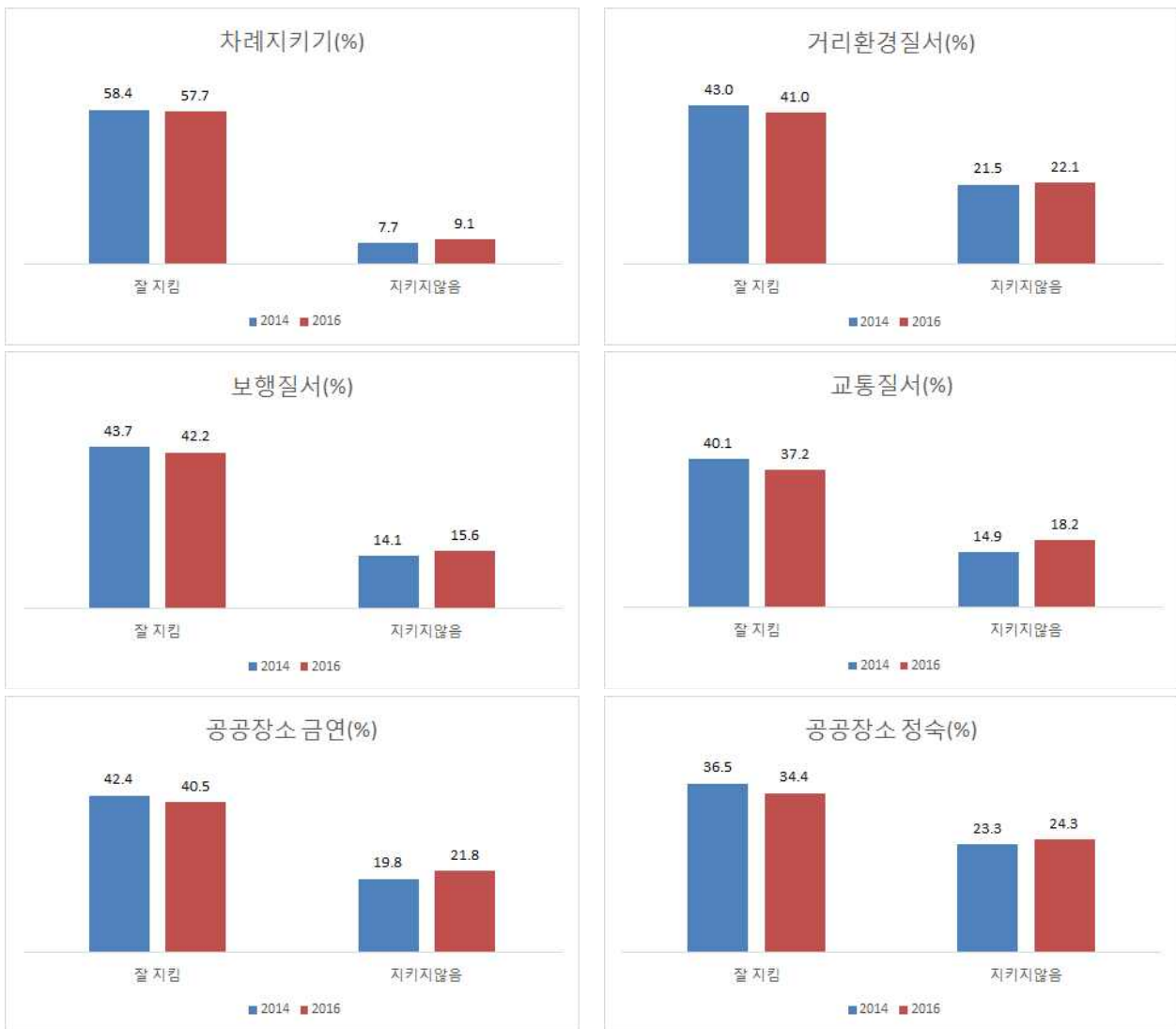
구분	잘 지킨다	아주 잘지킴		보통	지키지않는편
		아주 잘지킴	비교적 잘지킴		
2014	75.5	23.8	51.8	23.6	0.9
2016	76.8	23.8	53.0	22.3	1.0
(증감)	1.3	0.0	1.2	-1.3	0.1
포항시	79.2	22.1	57.2	19.2	1.6
경주시	81.2	28.4	52.8	18.2	0.6
김천시	77.7	22.7	55.0	21.5	0.9
안동시	79.7	24.3	55.4	20.0	0.2
구미시	73.8	25.8	48.1	25.0	1.1
영주시	65.0	14.2	50.9	34.1	0.9
영천시	74.4	23.2	51.2	25.2	0.3
상주시	85.1	27.9	57.2	14.4	0.5
문경시	85.3	33.4	51.9	14.2	0.5
경산시	71.2	11.7	59.5	27.6	1.3
군위군	85.5	43.8	41.8	13.9	0.5
의성군	86.2	39.6	46.6	13.5	0.3
청송군	77.9	20.6	57.3	21.7	0.4
영양군	87.8	27.4	60.4	11.8	0.4
영덕군	67.0	27.0	40.0	31.0	2.0
청도군	64.7	19.8	44.9	33.6	1.6
고령군	76.9	18.2	58.7	22.4	0.7
성주군	63.7	18.7	45.0	33.2	3.1
칠곡군	75.8	28.4	47.4	23.7	0.4
예천군	69.3	30.2	39.1	30.5	0.2
봉화군	86.7	40.9	45.8	13.1	0.2
울진군	82.0	27.4	54.6	17.4	0.6
울릉군	80.8	33.2	47.6	19.2	0.0

(단위 : %, %p)

17. 우리 국민들의 공공질서 준수수준

차레지키기는 '잘 지킨다'고 응답한 비율이 57.7%로 높은 반면, 공공장소 금연은 '잘 지킨다'고 응답한 비율이 40.5%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평소 우리국민들의 공공질서 수준에 대해 「차레지키기」는 '잘 지킨다'는 비율이 5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거리환경질서」 41.0%, 「보행질서」 42.2%, 「공공장소 금연」 40.5%로 나타남
- 2년전과 비교해서 대부분의 경우에서 '잘 지킨다'는 비율이 감소한 반면 '지키지 않는다'는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p)

구분	차레지키기		거리환경질서		보행질서		교통질서		공공장소 금연		공공장소 정숙	
	잘 지킴	지키지 않음	잘 지킴	지키지 않음	잘 지킴	지키지 않음	잘 지킴	지키지 않음	잘 지킴	지키지 않음	잘 지킴	지키지 않음
2014	58.4	7.7	43.0	21.5	43.7	14.1	40.1	14.9	42.4	19.8	36.5	23.3
2016	57.7	9.1	41.0	22.1	42.2	15.6	37.2	18.2	40.5	21.8	34.4	24.3
(증감)	-0.7	1.4	-2	0.6	-1.5	1.5	-2.9	3.3	-1.9	2	-2.1	1

18. 일상생활상 두려움

혼자 집에 있는 경우보다 혼자 골목길을 걸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상대적으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는 비율은 6.2%로 나타났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은 73.1%로 나타남

- 남자 2.4%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 9.5%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

□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는 비율은 63.6%로 나타났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은 11.4%로 나타남

- 남자의 4.9%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 17.1%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

□ 「혼자 택시, 지하철을 탈 때」 '두려움'을 느낀다는 비율은 11.1%로 나타났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은 60.4%로 나타남

- 남자 4.5%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 16.9%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



(단위 : %)

구분	혼자 집에 있을 때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혼자 택시/지하철을 탈 때		
	두렵지 않음	보통	두려움	두렵지 않음	보통	두려움	두렵지 않음	보통	두려움
2016	73.1	20.7	6.2	63.6	25.0	11.4	60.4	28.5	11.1
남	80.4	17.1	2.4	74.2	20.9	4.9	72.6	22.9	4.5
여	66.8	23.7	9.5	54.4	28.6	17.1	49.7	33.4	16.9

19. 범죄피해 대상별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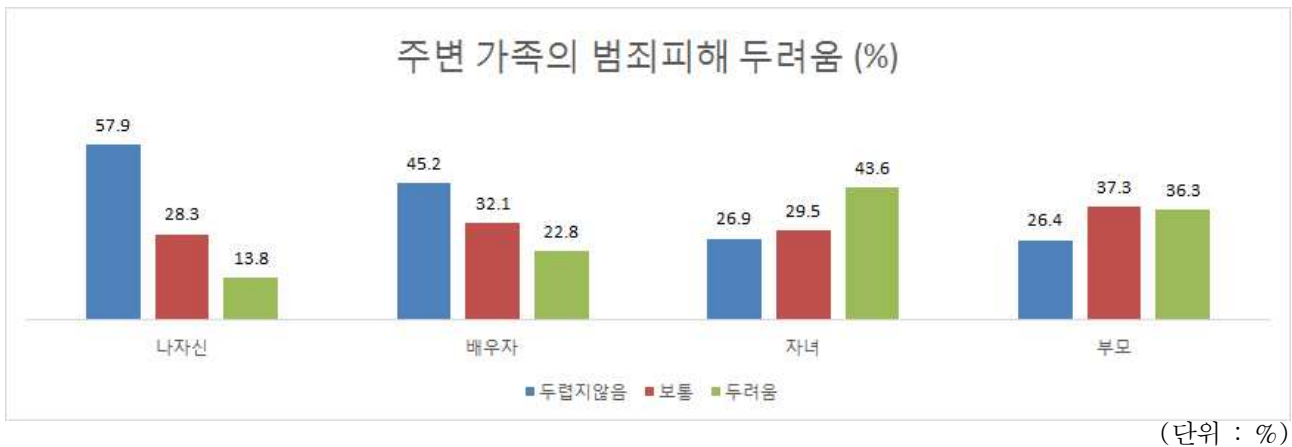
자신보다는 자녀, 부모, 배우자의 순으로 범죄피해 발생을 두려워 함

□ '주변가족이 범죄피해를 당할까 두려운가'라는 질문에 대해, '두렵다'는 비율이 '두렵지 않다'는 비율보다 큰 관계는 「자녀」, 「부모」로 나타남

- 「자녀」: '두렵지 않다' (26.9%) > '두렵다' (43.6%)

「배우자」: '두렵지 않다' (26.4%) > '두렵다' (36.3%)

- 가구소득별로 가구월평균소득이 클수록 「나 자신」의 범죄발생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배우자」, 「자녀」, 「부모」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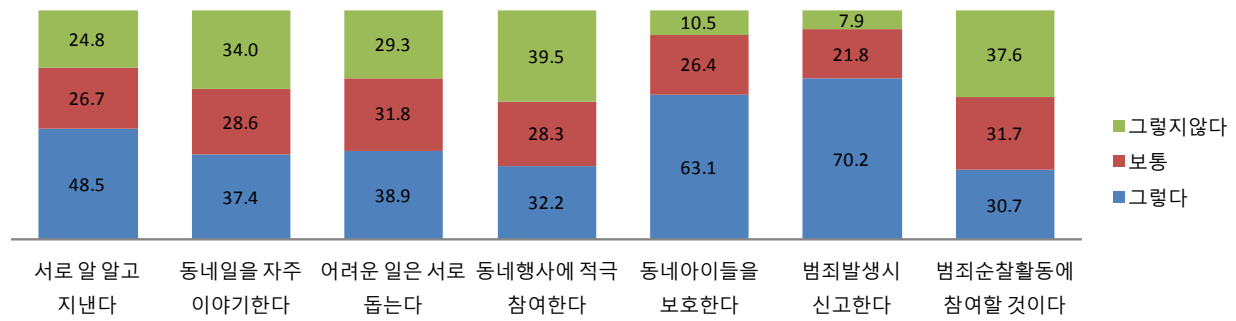
구분	나 자신			배우자			자녀			부모		
	두렵지 않음	보통	두려움	두렵지 않음	보통	두려움	두렵지 않음	보통	두려움	두렵지 않음	보통	두려움
2016	57.9	28.3	13.8	45.2	32.1	22.8	26.9	29.5	43.6	26.4	37.3	36.3
남	67.8	25.2	7.0	42.0	31.7	26.3	28.0	30.4	41.6	29.0	36.9	34.0
여	49.2	31.0	19.8	48.3	32.5	19.2	26.1	28.7	45.2	23.8	37.7	38.5
100만원미만	62.1	26.0	11.9	50.7	28.1	21.2	31.7	33.4	34.9	32.3	38.1	29.6
100-200만원	62.6	26.5	10.9	43.9	32.4	23.7	30.2	31.7	38.0	27.4	38.1	34.5
200-300만원	64.3	27.3	8.4	39.1	33.5	27.4	25.2	29.1	45.7	22.8	39.5	37.6
300-400만원	63.6	27.3	9.1	38.2	34.1	27.7	24.6	29.4	46.0	24.0	36.8	39.2
400-500만원	65.2	26.2	8.7	36.1	33.5	30.4	21.7	26.6	51.7	21.6	35.0	43.4
500만원이상	67.7	23.0	9.3	38.0	31.4	30.6	25.1	24.7	50.2	26.5	33.2	40.2

20. 동네 주민과의 관계

동네 사람들과 서로 잘 알고 지낸다는 비율은 절반에 못미치는 48.5%로 나타남

- 동네사람들에 대해 평소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48.5%, 「그렇지 않다」 24.8%로 나타남
 - 남자보다는 여자가 「그렇다」는 비율이 높음
- 평소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37.4%, 「그렇지 않다」 34.0%로 나타남
 - 「그렇다」는 비율은 남자 33.2%, 여자 41.2%로 나타남
-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38.9%, 「그렇지 않다」 29.3%로 나타남
 - 「그렇다」는 비율은 남자 35.4%, 여자 42.0%로 나타남
- '동네 행사와 모임에 적극 참여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32.2%, 「그렇지 않다」 39.5%로 나타남
 - 「그렇다」는 비율은 남자 29.9%, 여자 34.2%로 나타남
- '동네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63.1%, 「그렇지 않다」 10.5%로 나타남
 - 「그렇다」는 비율은 남자 63.5%, 여자 62.8%로 나타남
-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70.2%, 「그렇지 않다」 7.9%로 나타남
 - 「그렇다」는 비율은 남자 70.9%, 여자 69.7%로 나타남
-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해야한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30.7%, 「그렇지 않다」 37.6%로 응답함
 - 「그렇다」는 비율은 남자 33.8%, 여자 28.0%로 나타남

동네 주민과의 관계(%)



(단위 : %)

구분	서로 잘 알고 지낸다			동네일을 자주 이야기한다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2016	48.5	26.7	24.8	37.4	28.6	34.0	38.9	31.8	29.3
남	44.3	27.2	28.5	33.2	28.5	38.3	35.4	31.8	32.8
여	52.3	26.2	21.5	41.2	28.7	30.2	42.0	31.8	26.2
29세이하	15.6	29.8	54.7	9.0	25.1	66.0	11.4	30.4	58.2
30-39세	22.9	33.5	43.6	14.2	31.3	54.6	15.5	36.4	48.1
40-49세	33.4	34.8	31.7	21.4	34.1	44.5	24.2	37.8	38.1
50-59세	47.6	30.2	22.2	34.8	31.7	33.5	37.0	34.9	28.2
60세이상	71.0	19.2	9.8	59.1	25.4	15.5	59.6	27.2	13.2

구분	동네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동네아이들을 보호한다			범죄발생시 신고한다			범죄순찰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2016	32.2	28.3	39.5	63.1	26.4	10.5	70.2	21.8	7.9	30.7	31.7	37.6
남	29.9	27.6	42.5	63.5	25.8	10.7	70.9	20.9	8.3	33.8	32.0	34.2
여	34.2	28.8	37.0	62.8	26.8	10.4	69.7	22.7	7.6	28.0	31.4	40.6
29세이하	7.3	24.2	68.5	43.7	34.1	22.1	55.5	28.2	16.3	17.4	33.7	49.0
30-39세	10.4	27.4	62.2	54.3	31.0	14.7	63.4	26.1	10.5	21.4	37.2	41.5
40-49세	17.8	31.8	50.4	59.5	30.0	10.5	69.3	22.9	7.8	29.9	36.3	33.8
50-59세	31.2	30.4	38.4	65.6	25.9	8.6	72.4	21.1	6.5	34.2	32.4	33.5
60세이상	51.1	27.3	21.5	71.3	21.7	7.0	75.7	18.8	5.5	35.8	27.6	36.7

V 문화와 여가

21. 공연 및 스포츠 관람경험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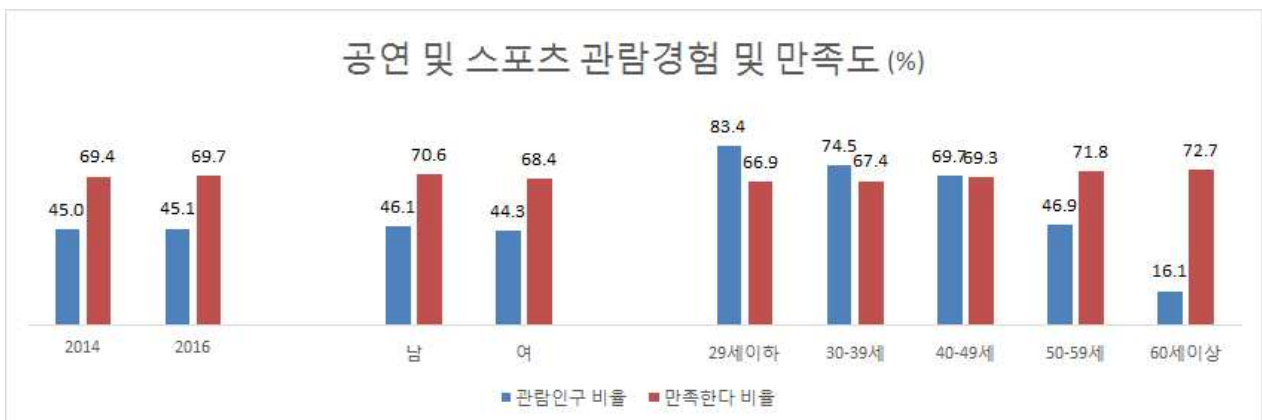
지난 1년간 공연 및 스포츠를 관람한 인구비율은 절반에 못미치는 45.1%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공연 및 스포츠를 관람한 인구비율은 45.1%로 절반에 못미치고, 2년전(45.0%)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 46.1%, 여자 44.3%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9세이하」는 83.4%인데 비해 「60세이상」은 16.1%로 연령이 높을수록 떨어짐

□ 관람한 공연 및 스포츠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69.7%로 나타나 만족도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만족도는 성별, 연령별로 모두 고르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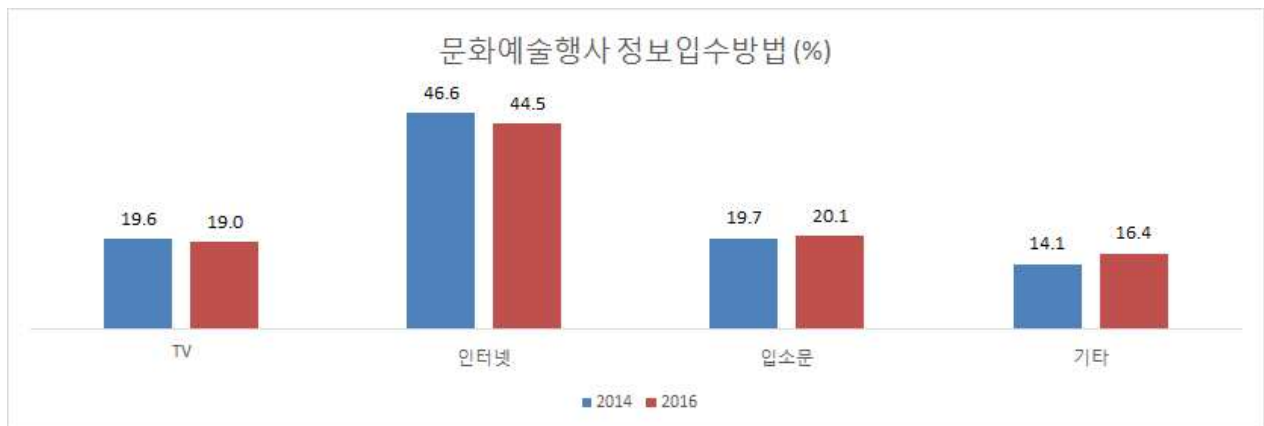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관람인구 비율	만족한다 비율
2014	45.0	69.4
2016	45.1	69.7
(증감)	0.1	0.3
남	46.1	70.6
여	44.3	68.4
29세이하	83.4	66.9
30-39세	74.5	67.4
40-49세	69.7	69.3
50-59세	46.9	71.8
60세이상	16.1	72.7

22. 문화예술행사 정보입수 방법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과 입소문을 통해서 주로 얻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정보입수방법으로 「인터넷」 44.5%, 「입소문」 20.1%, 「TV」 19.0%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인터넷」은 남자 47.1%, 여자 42.1%로 나타났는데 비해 「입소문」은 남자 17.2%, 여자 22.8%로 나타나 여자들이 조금더 입소문 의존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인터넷」은 29세이하 65.5%, 60세이상 11.0%로 나타났는데 비해 「입소문」은 29세이하 13.1%, 60세이상 35.7%로 나타나, 젊은 층은 「인터넷」을 노년층은 「입소문」을 통해 정보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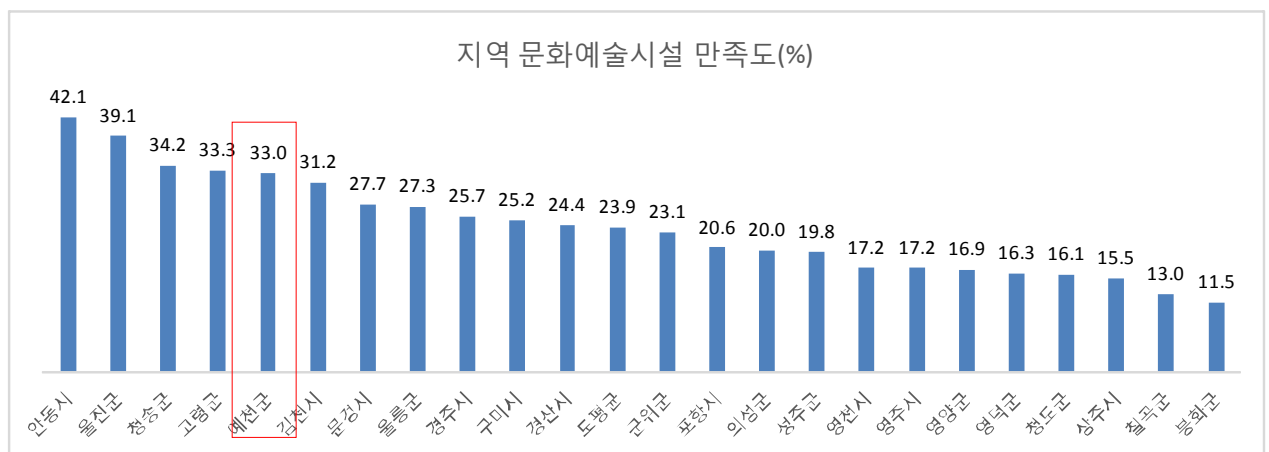
구분	TV	인터넷	입소문	기타
2014	19.6	46.6	19.7	14.1
2016	19.0	44.5	20.1	16.4
(증감)	-0.6	-2.1	0.4	2.3
남	18.9	47.1	17.2	16.8
여	19.0	42.1	22.8	16.0
29세이하	12.0	65.5	13.1	9.3
30-39세	14.5	59.9	13.0	12.7
40-49세	19.2	47.4	18.1	15.2
50-59세	24.8	28.4	25.3	21.5
60세이상	26.5	11.0	35.7	26.8

23. 문화예술시설 만족도

지역 문화예술시설에 이용후 만족한다는 비율은 23.9%로 2년전에 비해 감소함

□ 지역문화예술시설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23.9%로 2년전 25.3%에 비해 1.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은 상위 3개 시군은 안동시, 울진군, 청송군이고 하위 3개 시군은 봉화군, 칠곡군, 상주시로 나타남



(단위 : %, %p)

구분	만족한다	매우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는다	불만족	매우불만족
2014	25.3	2.5	22.8	56.0	18.8	15.2	3.6
2016	23.9	2.6	21.3	59.6	16.5	14.1	2.4
(증감)	-1.4	0.1	-1.5	3.6	-2.3	-1.1	-1.2
포항시	20.6	1.9	18.7	58.4	21.1	18.4	2.7
경주시	25.7	2.1	23.6	56.3	18.0	14.8	3.3
김천시	31.2	3.7	27.5	60.8	7.9	7.1	0.8
안동시	42.1	4.4	37.7	48.6	9.3	8.4	0.9
구미시	25.2	2.7	22.4	59.8	15.1	12.6	2.5
영주시	17.2	0.9	16.3	61.7	21.1	16.3	4.8
영천시	17.2	1.4	15.8	69.6	13.2	10.7	2.5
상주시	15.5	1.4	14.1	63.4	21.1	15.2	5.9
문경시	27.7	4.9	22.8	61.5	10.7	10.0	0.7
경산시	24.4	2.0	22.4	59.4	16.3	14.9	1.3
군위군	23.1	2.2	20.9	66.3	10.6	9.7	0.9
의성군	20.0	2.8	17.2	66.4	13.5	11.2	2.3
청송군	34.2	7.6	26.6	54.2	11.6	10.5	1.2
영양군	16.9	0.8	16.1	72.4	10.7	9.7	1.0
영덕군	16.3	1.0	15.3	72.6	11.1	9.7	1.4
청도군	16.1	0.6	15.6	64.4	19.5	18.8	0.7
고령군	33.3	4.7	28.7	52.5	14.2	10.9	3.3
성주군	19.8	5.1	14.7	59.2	21.1	18.5	2.6
칠곡군	13.0	1.2	11.8	67.1	20.0	17.8	2.1
예천군	33.0	6.3	26.7	53.7	13.3	12.4	0.9
봉화군	11.5	1.9	9.6	66.4	22.1	18.8	3.3
울진군	39.1	10.4	28.7	45.9	15.0	12.3	2.7
울릉군	27.3	6.8	20.5	52.0	20.8	11.9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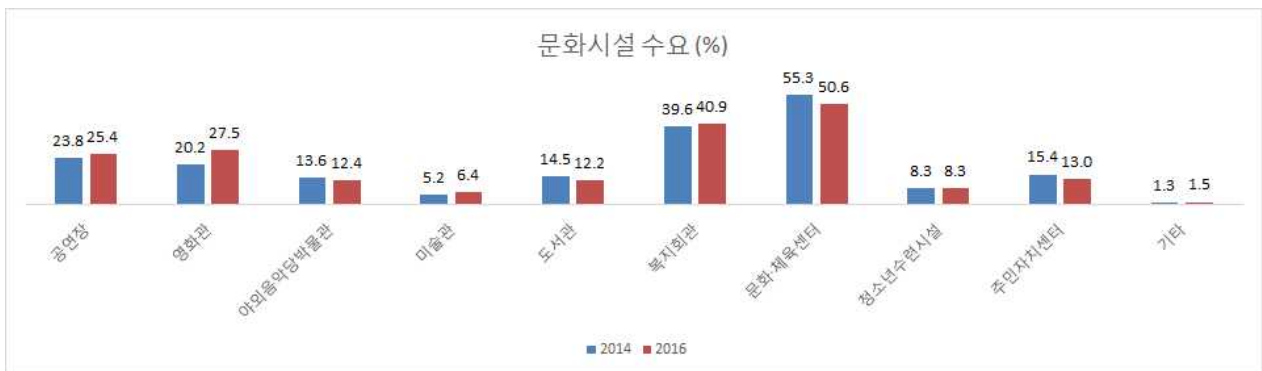
24. 문화예술시설 수요

가장 필요한 문화시설로 전 연령층에서는 문화체육센터가, 20대이하는 영화관, 60대이상은 복지회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살고있는 지역에서 필요한 문화시설로는 「문화체육센터」 50.6%로 가장 높고 이어 「복지회관」 40.9%, 「영화관」 27.5%의 순

- 29세이하는 「영화관」 46.8%, 「문화체육센터」 43.2%, 「공연장」 39.0%의 순

- 30~39세는 「문화체육센터」 50.5%, 「영화관」 36.3%, 「공연장」 34.8%의 순



단위 : %, %p

구분	공연장	영화관	야외음악당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주민자치센터	기타
2014	23.8	20.2	13.6	5.2	14.5	39.6	55.3	8.3	15.4	1.3
2016	25.4	27.5	12.4	6.4	12.2	40.9	50.6	8.3	13.0	1.5
(증감)	1.6	7.3	-1.2	1.2	-2.3	1.3	-4.7	0	-2.4	0.2
남	25.6	28.7	12.1	5.7	13.7	37.4	52.1	9.0	12.6	1.3
여	25.3	26.4	12.6	7.0	10.9	44.0	49.2	7.7	13.4	1.7
29세이하	39.0	46.8	15.4	9.4	16.4	8.4	43.2	15.8	2.3	1.3
30-39세	34.8	36.3	17.2	9.3	19.3	16.8	50.5	9.1	3.6	1.1
40-49세	28.0	33.1	14.8	8.5	18.9	22.7	52.3	13.7	5.6	0.7
50-59세	25.4	28.7	14.0	7.1	12.3	38.7	52.5	7.5	11.1	1.1
60세이상	18.1	17.0	8.6	3.7	6.5	64.6	51.2	4.3	22.3	2.1

25. 지난 1년간 여행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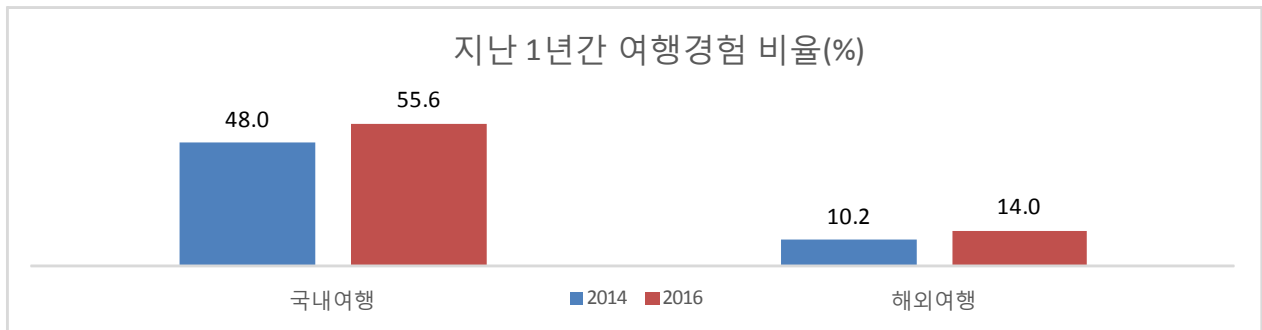
지난 1년간 관광목적 국내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인구의 절반인 55.6%이고,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전체의 14.0%으로 2년전에 비해 증가함

□ 지난 1년간 관광목적 국내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전체 인구의 55.6%이고 이중 63.9%는 1회 평균 1.65일의 숙박여행을 다녀옴

- 2년전과 비교해서 국내여행 경험자는 7.6%p 증가하였고 숙박여행 비율도 1.8%p 증가하였으나 숙박여행 1회 평균숙박일수는 0.7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여행 경험비율은 가구소득규모별로 차이가 많이 나서, 월평균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은 지난 1년간 국내여행 경험비율이 33.5%인데 비해 월평균가구소득이 500만원이상인 가구는 80.1%로 나타남

□ 해외여행 경험비율은 14.0%로 2년전에 비해 3.8%p 증가함

- 여행의 목적은 「관광」 88.9%, 「가사」 8.4%, 「업무」 7.7%, 「교육」 3.3%의 순



(단위 : %, %p)

구분	국내여행 경험				해외여행 경험						
	있다(%)	숙박 여행	숙박여행 1회당 평균일수	당일여행 횟수	있다 (%)	관광 (%)	가사 (%)	업무 (%)	교육 (%)	없다 (%)	향후 계획있다 (%)
2014	48.0	62.1	2.4	4.4	10.2	83.1	8.4	11.0	3.9	89.9	27.6
2016	55.6	63.9	1.65	3.04	14.0	88.9	8.4	7.7	3.3	86.0	34.6
(증감)	7.6	1.8	-0.7	-1.4	3.8	5.8	0.1	-3.4	-0.6	-3.8	7.0
100만원미만	33.5	45.6	0.88	2.20	5.5	86.9	12.3	2.0	5.5	94.5	12.4
100-200만원	45.3	53.0	1.23	2.72	10.8	90.4	10.2	2.5	2.1	89.2	26.8
200-300만원	63.0	65.0	1.65	3.1	15.4	88.6	9.1	9.2	3.8	84.6	42.8
300-400만원	68.5	72.7	2.04	3.42	19.4	84.1	6.9	16.9	3.0	80.6	51.3
400-500만원	74.6	79.1	2.24	3.75	24.6	87.2	7.4	13.7	3.3	75.4	53.8
500만원이상	80.1	81.9	2.76	4.25	35.0	83.1	5.8	20.6	2.6	65.0	54.6

26. 여가생활 만족도* 및 불만족시 그 이유

*만족도 = 매우 만족한다 + 비교적 만족한다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인구는 전체의 18.1%이고,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 시간부족, 건강문제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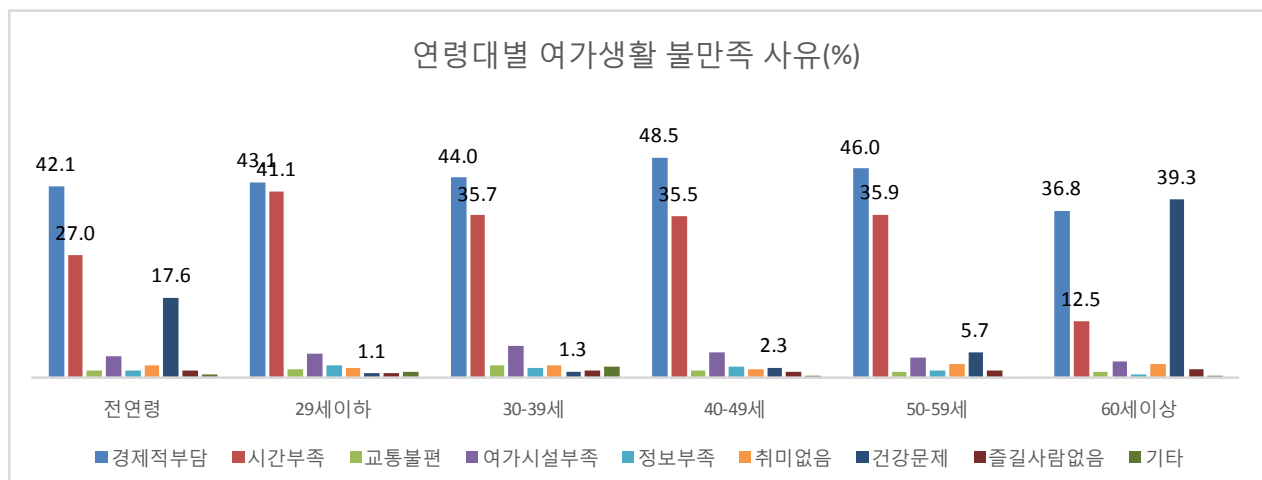
□ 평소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5.4%인데 비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8.1%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전연령대에 걸쳐 '만족한다'는 비율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보다 높음

□ 평소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 42.1%, 「시간부족」 27.0%, 「건강문제」 17.6%, 「여가시설부족」 4.8%의 순으로 나타남

- 29세이하는 「경제적 부담」 43.1%, 「시간부족」 41.1%의 비율이 가장 높음

- 60세이상은 「건강문제」 39.3%, 「경제적 부담」 36.8%, 「시간부족」 12.5%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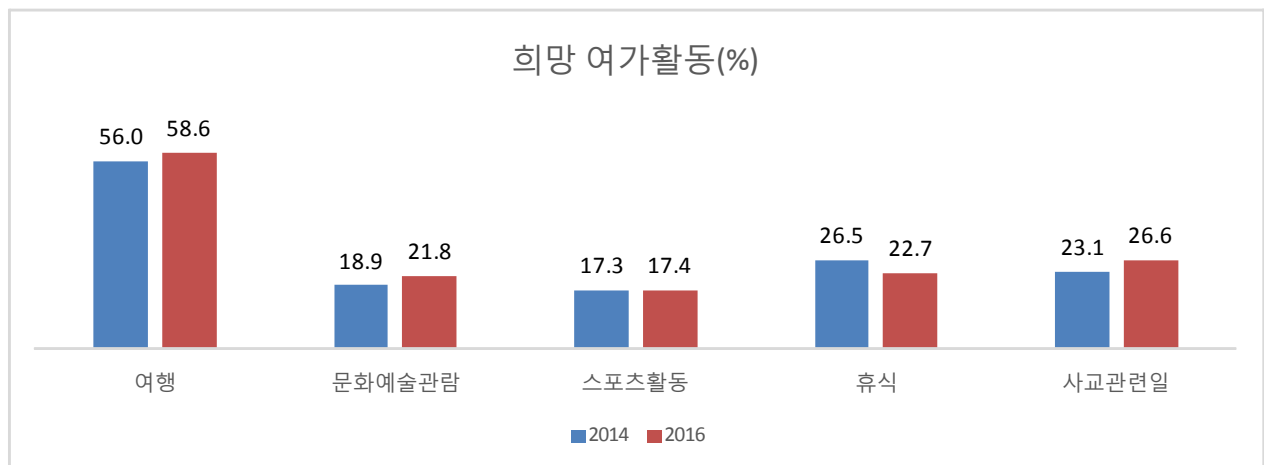
구분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불만족 사유								
			경제적 부담	시간부족	교통불편	여가시설부족	정보부족	취미없음	건강문제	즐길사람없음	기타
전연령	25.4	21.0	42.1	27.0	1.7	4.8	1.6	2.8	17.6	1.6	0.8
29세이하	28.5	21.7	43.1	41.1	1.9	5.4	2.8	2.3	1.1	1.0	1.3
30-39세	27.2	22.8	44.0	35.7	2.8	7.1	2.1	2.9	1.3	1.7	2.5
40-49세	28.6	21.3	48.5	35.5	1.7	5.5	2.6	2.0	2.3	1.4	0.6
50-59세	27.9	21.0	46.0	35.9	1.3	4.6	1.6	3.2	5.7	1.6	0.2
60세이상	21.7	20.3	36.8	12.5	1.5	3.7	0.8	3.1	39.3	1.8	0.4

27. 희망 여가시간 활용방법

전체의 절반이상이 시간 및 경제적 여유가 주어질 때 여가활동으로 「여행」을 희망

□ (향후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경우) 여가활동으로는 「여행」 58.6%, 「사교관련일」 26.6%, 「휴식」 22.7%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남자는 「여행」 62.0%, 「스포츠활동」 27.1%, 「사교관련」 23.7% 등을 선호하였고, 여자는 「여행」 55.7%, 「사교관련」 29.2%, 「문화예술관람」 23.6% 등을 선호
- 연령대별로 29세이하는 「여행」 57.6%, 「문화예술관람」 34.1%, 「스포츠활동」 24.7% 순으로 선호하는데 비해 60세이상은 「여행」 49.4%, 「사교관련일」 37.2%, 「휴식」 29.2% 등을 선호함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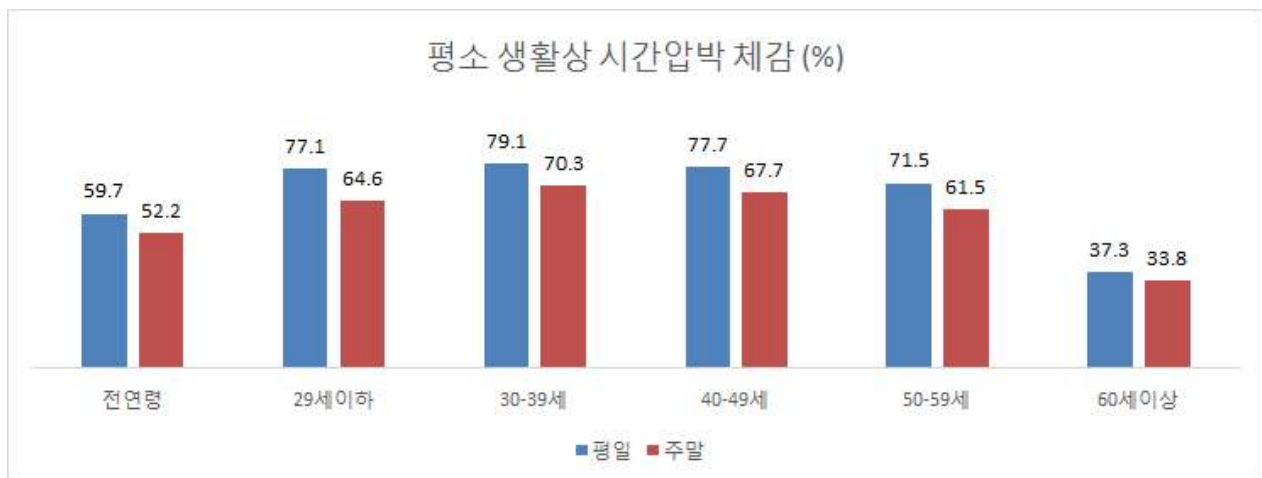
구분	여행	문화예술관람	스포츠활동	휴식	사교관련일
2014	56.0	18.9	17.3	26.5	23.1
2016	58.6	21.8	17.4	22.7	26.6
(증감)	2.6	2.9	0.1	-3.8	3.5
남	62.0	19.7	27.1	20.9	23.7
여	55.7	23.6	8.9	24.2	29.2
29세이하	57.6	34.1	24.7	16.0	14.5
30-39세	66.5	30.4	25.8	18.1	16.8
40-49세	67.7	27.9	26.3	17.0	18.1
50-59세	67.4	22.8	20.6	20.0	23.9
60세이상	49.4	13.2	8.2	29.2	37.2

28. 평소 생활속 시간압박의 체감

평소 생활이 바쁘거나 시간부족을 느낀다는 비율은 평일 59.7%, 주말 52.2%로 전체의 절반 이상

□ 평소 생활이 바쁘거나 시간부족을 느끼는 지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일 59.7%, 주말 52.2%로 나타남

- 성별로 남자는 평일 64.7%, 주말 56.1%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는 평일 55.3%, 주말 48.9%라고 응답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생활속 시간압박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30~39세는 평일 79.1%, 주말 70.3%가 시간압박을 느낀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60세이상은 평일 37.3%, 주말 33.8%로 시간압박 체감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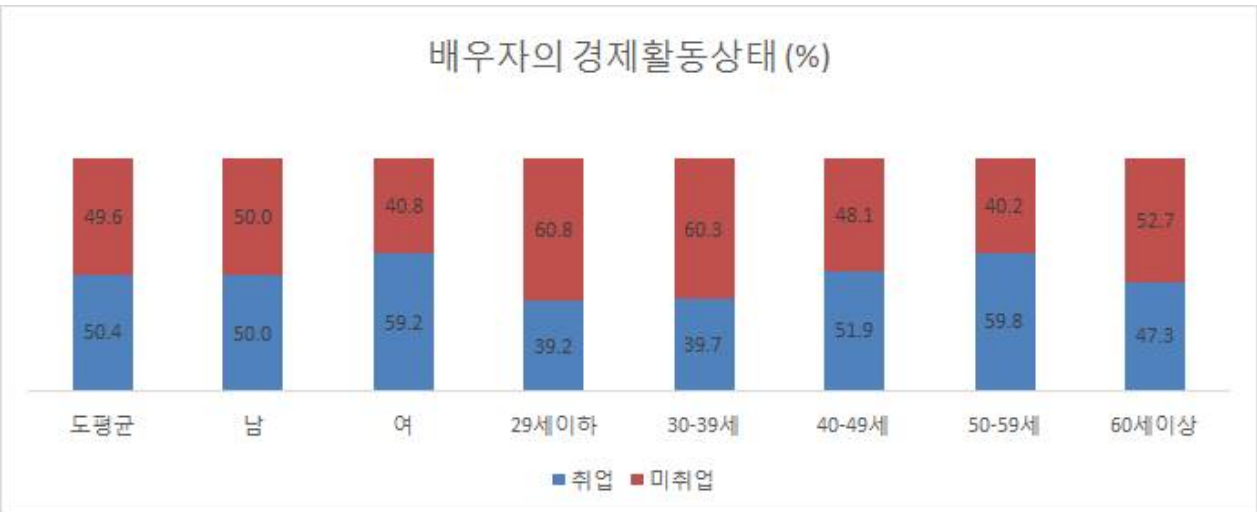
구분	평일		주말	
	그렇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전체평균	59.7	40.3	52.2	47.8
남	64.7	35.3	56.1	43.9
여	55.3	44.7	48.9	51.1
29세이하	77.1	23.0	64.6	35.4
30-39세	79.1	20.9	70.3	29.8
40-49세	77.7	22.3	67.7	32.3
50-59세	71.5	28.5	61.5	38.5
60세이상	37.3	62.7	33.8	66.2

29.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유배우자 인구의 절반(50.4%)은 배우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배우자가 있는 인구의 절반(50.4%)은 배우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의 직업이 있다는 비율은 29세이하 39.2%, 40~49세 51.9%, 50~59세 59.8%로 60대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올라감
- 자녀부양과 교육 등의 부담이 많은 50대까지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배우자가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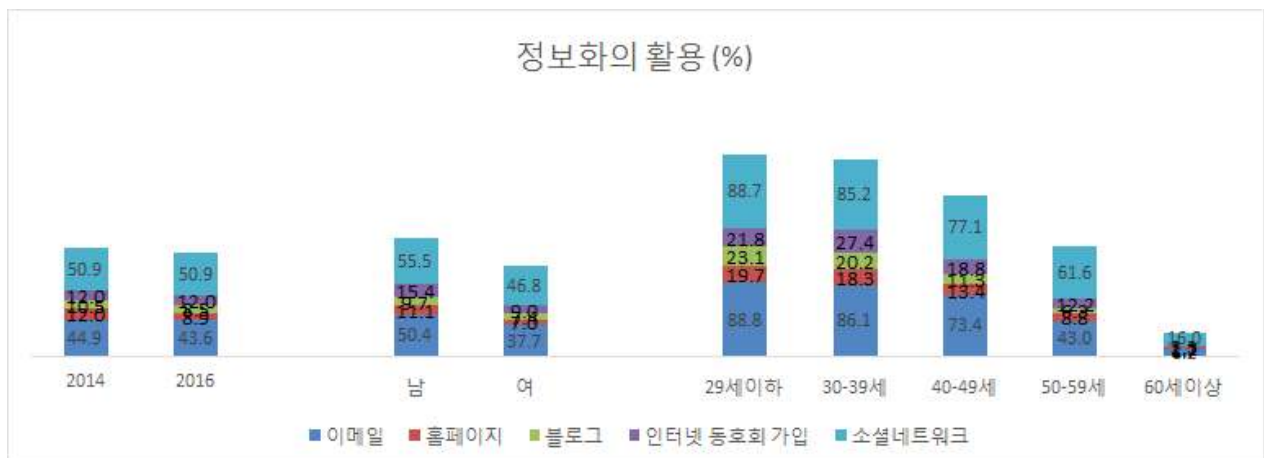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취업	미취업
2015	51.8	48.2
2016	50.4	49.6
남	50.0	50.0
여	59.2	40.8
29세이하	39.2	60.8
30-39세	39.7	60.3
40-49세	51.9	48.1
50-59세	59.8	40.2
60세이상	47.3	52.7
비경제활동상태	20.4	79.6
취업상태	59.1	40.9

30. 정보화의 활용

도내 인구의 43.6%가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고, 인구의 50.9%는 소셜네트워크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남

- 「이메일(을) 보유」한 인구는 전체의 43.6%, 「홈페이지 보유」 8.9%, 「블로그 보유」 8.5%, 「인터넷 동호회가입」 12.0%, 「소셜네트워크 가입」 50.9%의 순으로 나타남.
- 「이메일 보유」는 남자 50.4%, 여자 37.7%로 남자의 보유율이 높고, 연령별로는 29세이하는 88.8%인데 비해 60세이상은 8.2%로 연령이 높을수록 보유율이 낮아짐
- 「인터넷동호회 가입」은 남자 15.4%, 여자 9.0%로 남자의 가입율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39세가 29세이하를 제치고 27.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셜네트워크가입」은 남자 55.5%, 여자 46.8%로 남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29세이하 88.7%로 가장 높고 60세이상은 16.0%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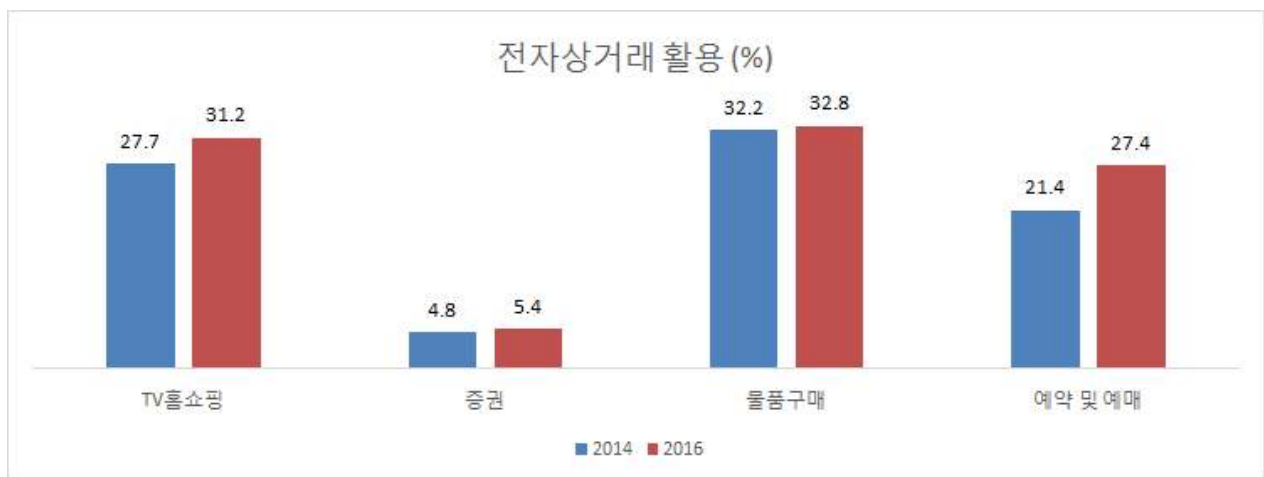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이메일	홈페이지	블로그	인터넷 동호회 가입	소셜네트워크
2014	44.9	12.0	10.5	12.0	50.9
2016	43.6	8.9	8.5	12.0	50.9
(증감)	-1.3	-3.1	-2.0	0.0	0.0
남	50.4	11.1	9.7	15.4	55.5
여	37.7	7.0	7.4	9.0	46.8
29세이하	88.8	19.7	23.1	21.8	88.7
30-39세	86.1	18.3	20.2	27.4	85.2
40-49세	73.4	13.4	11.3	18.8	77.1
50-59세	43.0	8.8	6.3	12.2	61.6
60세이상	8.2	1.7	1.1	2.3	16.0

31. 전자상거래 활용

인터넷, 휴대폰을 이용한 상거래 경험인구 비율은 32.8%로 2년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한 전자상거래 경험에 대해 「물품구매」는 전체의 32.8%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어 「TV홈쇼핑」 31.2%, 「예약 및 예매」 27.4%, 「증권」 5.4%의 순으로 나타남
- 2014년에 비해 「예약 및 예매」는 6.0%p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이어 「TV 홈쇼핑」 3.5%p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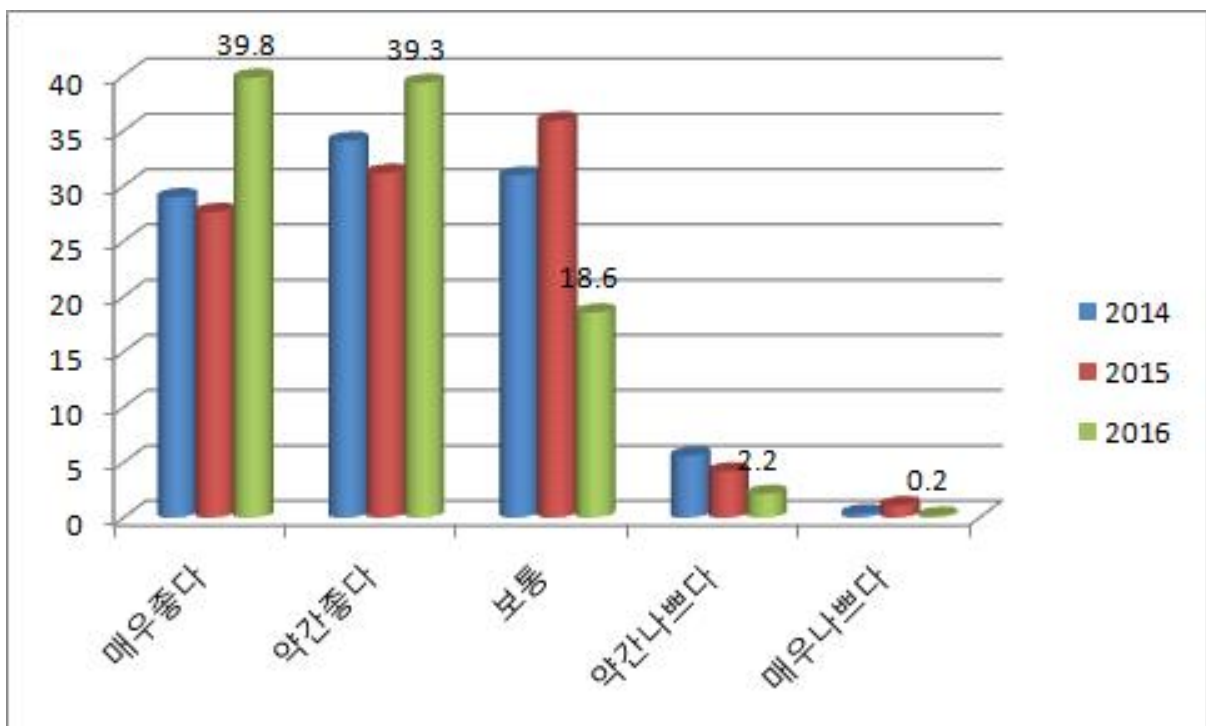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TV홈쇼핑	증권	물품구매	예약 및 예매
2014	27.7	4.8	32.2	21.4
2016	31.2	5.4	32.8	27.4
(증감)	3.5	0.6	0.6	6
남	24.3	7.9	31.6	28.5
여	37.3	3.2	33.8	26.5
29세이하	31.1	3.7	59.6	55.3
30-39세	61.5	11.7	70.1	62.5
40-49세	57.3	10.9	57.9	49.3
50-59세	40.1	6.9	32.7	23.4
60세이상	9.1	1.4	5.6	3.6

32. 생활 환경 만족도

생활 환경 만족도는 '매우좋다' 39.8%를 통하여 가장 많이 인지

- 생활 환경 만족도는 '매우좋다' 39.8%로 가장 비율이 높고 이어 '약간좋다' 39.3%, '보통' 18.6%, '약간나쁘다' 2.1%, '매우나쁘다' 0.2% 순으로 응답.



【생활 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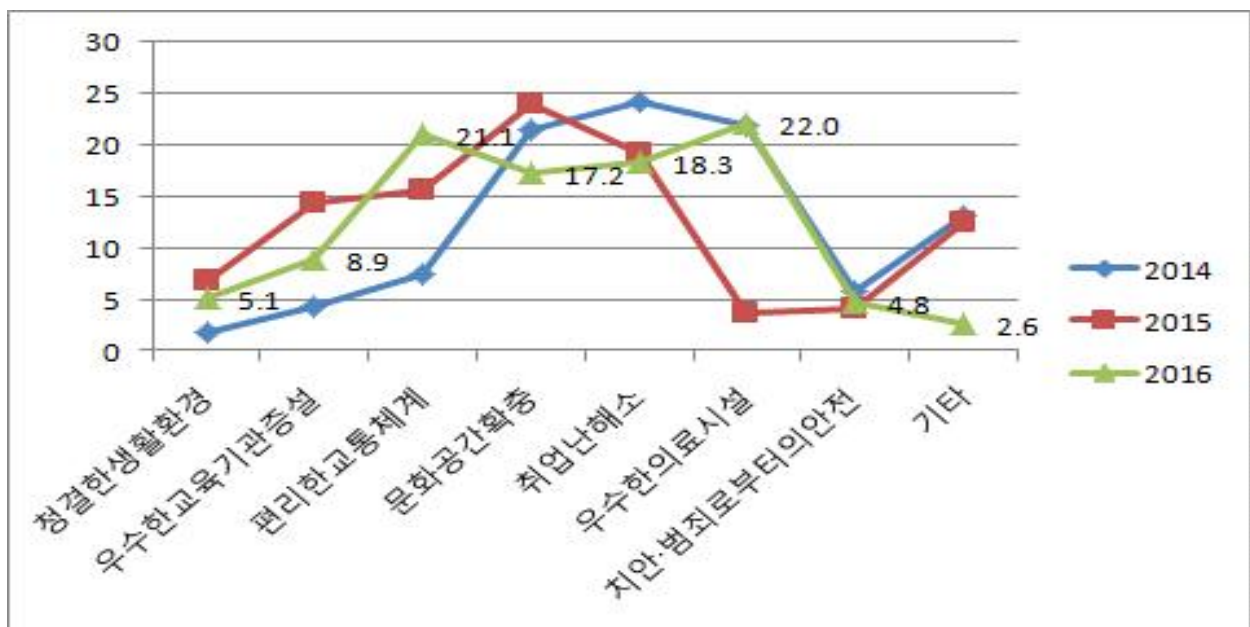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매우좋다	약간좋다	보통	약간나쁘다	매우나쁘다
2014	28.98	34.09	30.94	5.6	0.39
2015	27.63	31.18	35.9	4.18	1.11
2016	39.8	39.3	18.6	2.2	0.2
남자	38.1	38.3	20.5	2.7	0.4
여자	41.1	40.1	17.0	1.7	0.0

32-1. 살기좋은 군 만들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점

살기좋은 군 만들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점은 '우수한 의료시설' 22.0%를 통하여 가장 많이 인지

- 살기좋은 군 만들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점은 '우수한 의료시설' 22.0%로 가장 비율이 높고 이어 '편리한 교통체계' 21.1%, '취업난 해소' 18.3%, '문화공간 확충' 17.2%, '우수한 교육기관 증설' 8.9%, '청결한 생활 환경' 5.1%, '치안·범죄로부터의 안전' 4.8% 순으로 응답.



【살기좋은 군 만들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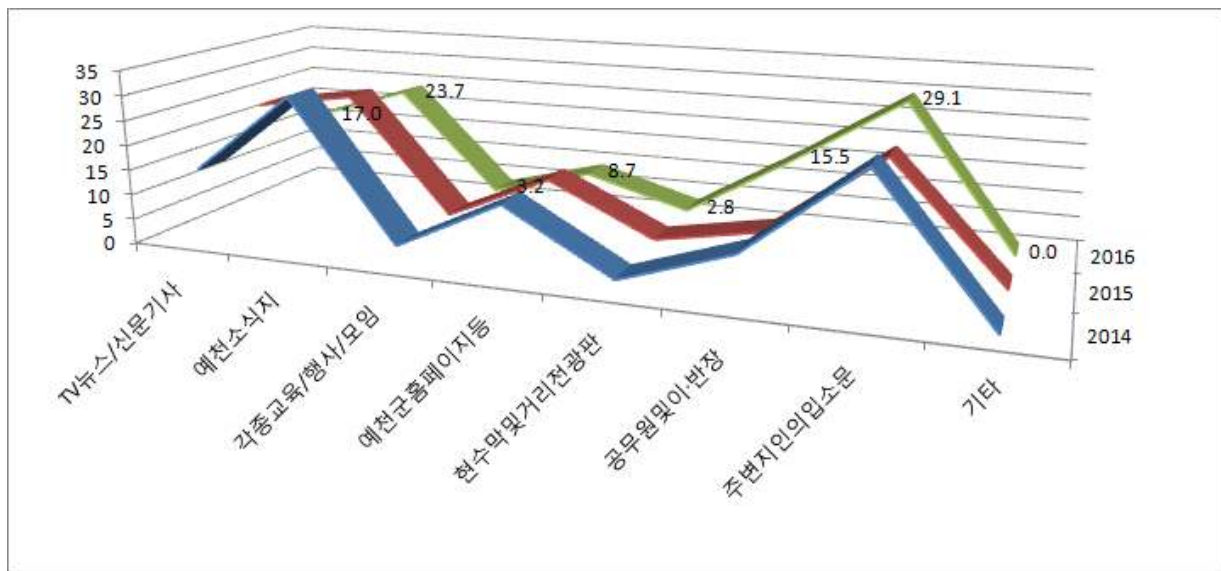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청결한 생활환경	우수한교육 기관증설	편리한 교통체계	문화 공간확충	취업난 해소	우수한 의료시설	치안·범 죄로부터 의안전	기타
2014	1.81	4.24	7.45	21.45	24.21	21.99	5.85	13.01
2015	6.87	14.25	15.61	23.94	19.23	3.62	4.05	12.43
2016	5.1	8.9	21.1	17.2	18.3	22.0	4.8	2.6
남자	4.4	10.0	15.7	15.0	26.0	18.4	6.6	4.0
여자	5.8	7.9	26.5	19.4	10.7	25.7	2.9	1.2

33. 군정 정보 획득 경로

군정정보는 '주변지인의입소문' 29.14% 를 통하여 가장 많이 인지

- 군정 정보는 '주변지인의입소문' 29.1%로 가장 비율이 높고 이어 예천소식지를 통해서 23.7%, 'TV뉴스 및 신문기사등을 통해서' 17.0%, '공무원 및 이반장' 15.5%, '예천군홈페이지' 8.7%, '각종 교육/행사/모임 등' 3.2%, '현수막 및 전광판' 2.8% 순으로 응답.



【군정 정보 획득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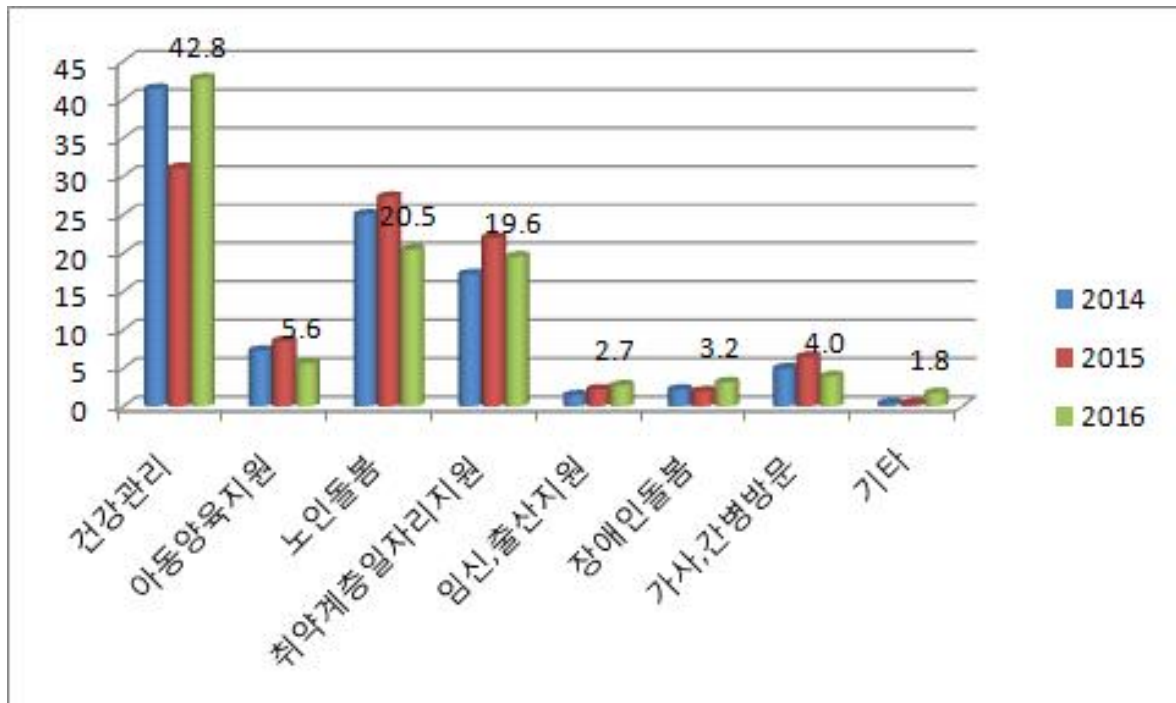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TV뉴스/ 신문 기사	예천 소식지	각종 교육/행사 /모임	예천군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	현수막 및 거리 전광판	공무원 및 이반장	주변 지인의 입소문	기타
2014	14.62	30.73	3.37	13.69	1.77	9.08	26.58	0.16
2015	23.52	26.74	3.52	12.94	2.87	6.74	23.17	0.49
2016	17.0	23.7	3.2	8.7	2.8	15.5	29.1	0.0
남자	20.1	25.6	3.3	11.6	3.9	14.2	21.5	0.0
여자	14.5	22.2	3.1	6.5	1.9	16.6	35.2	0.1
연령별								
29세이하	22.2	9.0	1.2	38.8	8.0	2.1	18.7	0.0
30-39세	14.4	32.8	2.4	30.6	4.1	5.5	10.3	0.0
40-49세	13.9	25.4	4.4	28.7	4.4	5.0	18.2	0.0
50-59세	15.8	27.7	5.2	9.9	3.8	18.1	19.6	0.0
60세이상	17.7	22.4	2.6	1.7	1.8	18.1	35.6	0.1

34. 향후 늘려야 할 복지시설

향후 늘려야 할 복지시설은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가 가장 높음

- 향후 늘려야 할 복지시설은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가 42.8%로 가장 높으며 이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20.5%,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서비스’ 19.6%, ‘아동 양육지원 및 돌봄서비스’ 5.6%, ‘가사, 간병 방문서비스’ 4.0%, ‘장애인돌봄서비스’ 3.2%, ‘임신출산지원서비스’ 2.7%의 순으로 응답.



【향후 늘려야 할 복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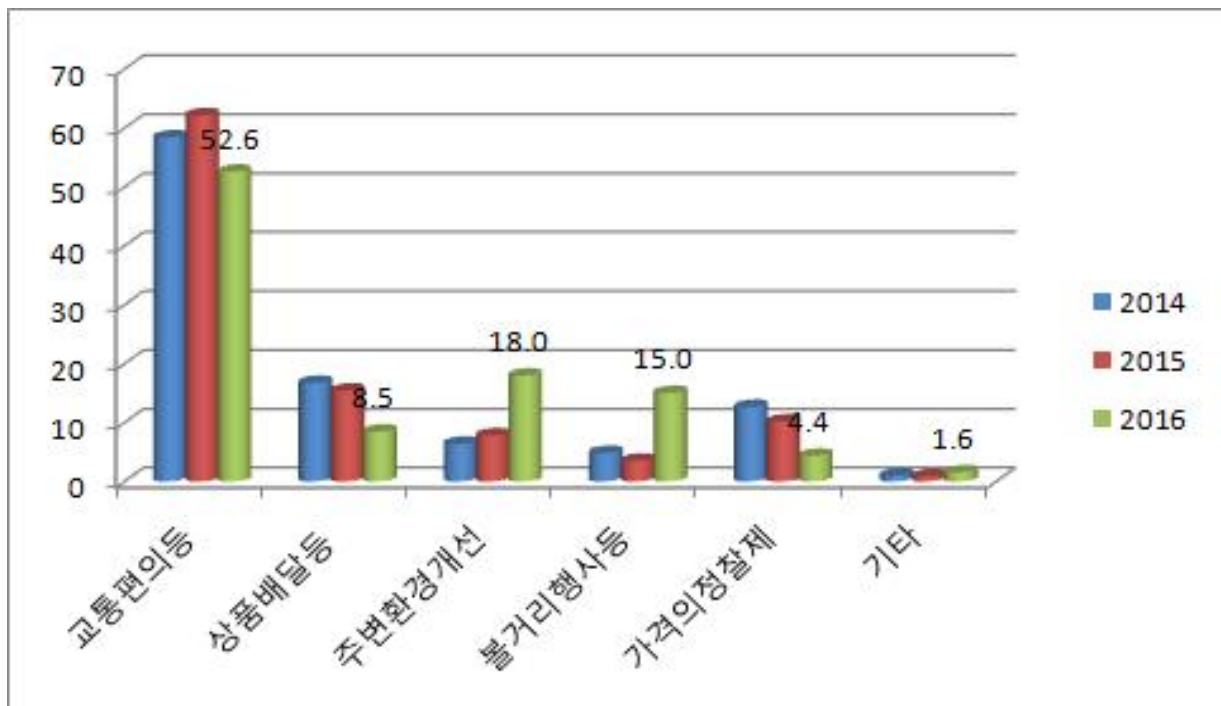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아동 양육지원 및 돌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임신, 출산 지원	장애인 돌봄 및 재활	가사, 간병 방문	기타
2014	41.41	7.28	25.02	17.25	1.46	2.22	4.97	0.39
2015	31.08	8.52	27.32	21.97	2.23	2	6.51	0.37
2016	42.8	5.6	20.5	19.6	2.7	3.2	4.0	1.8
남자	42.9	6.4	18.6	20.2	2.7	3.0	3.8	2.5
여자	42.7	5.0	21.9	19.0	2.8	3.3	4.1	1.2

35. 전통시장 개선사항

전통시장 개선사항은 ‘교통편의 및 주차시설 확보’가 가장 높음

- 전통시장 개선사항은 ‘교통편의 및 주차시설 확보’ 52.6%로 가장 비율이 높고, 이어 ‘주변환경 개선’ 18.0%, ‘불거리 행사 및 쉼터확충’ 15.0%, ‘상품배달 등 서비스개선’ 8.5%, ‘가격 정찰제의 실시’ 4.4%의 순으로 응답.



【전통시장 개선사항】

(단위 : %)

구분	교통편의 및 주차시설 확보	상품배달 등 서비스 개선	주변 환경 개선	불거리 행사 및 쉼터 확충	가격의 정찰제 실시	기타
2014	58.39	16.74	6.4	4.85	12.66	0.97
2015	62.16	15.42	7.82	3.54	10.19	0.88
2016	52.6	8.5	18.0	15.0	4.4	1.6
남자	57.0	6.7	17.0	13.3	4.2	1.8
여자	49.1	9.9	18.8	16.4	4.6	1.4



승인(협의)번호
제 216005호
제 780002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표(가구주)

(가구와 가족, 교육, 환경, 안전, 문화와 여가)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도민의 생활실태와 의식을 파악하고 복지정책수립, 도정평가, 지역발전방향 제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보다 살기 좋은 경북을 건설하기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경북도청 정책기획관실(☎054-880~2141), 예천군청 정보통계담당 (☎054-650-607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원 기입란

시·군	읍·면·동	행정구역 코드 번호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	가구원 번호
		37□□□□□	□□□-□	□□□	□□	□□
가구주 성명		주 소				

가구 명부

가구원 번호	성명	가구주 와의 관계	성 별		연령 (8.29 기준)	혼인상태	교육정도	조사 여부	불응/불능/ 분거 사유
			남	여					
1		1	①	②	만 세				
2			①	②	만 세				
3			①	②	만 세				
4			①	②	만 세				
5			①	②	만 세				
6			①	②	만 세				
7			①	②	만 세				
8			①	②	만 세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교육정도	조사 여부
1. 가구주 2. 가구주의 배우자 3. 미혼자녀 4.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5. 손자녀 및 그 배우자 6. 부모(배우자 쪽 포함) 7. 조부모(배우자 쪽 포함) 8. 미혼 형제·자매 9. 기타 친·인척 10. 기타 동거인	1. 미혼 2. 배우자 있음 3. 사별 4. 이혼	• 학교에 다니지 않음(10) • 초등학교 졸업(21), 재학(22), 중퇴(23) • 중학교 졸업(31), 재학(32), 중퇴(33) • 고등학교 졸업(41), 재학(42), 중퇴(43) • 대학교 졸업(51), 재학(52), 중퇴(53) • 대학원석사 졸업(61), 재학(62), 중퇴(63), 수료(64) • 대학원박사 졸업(71), 재학(72), 중퇴(73), 수료(74)	1. 조사 2. 불응 3. 불능 4. 대상외(15세 미만) 5. 비상주 가구원(분거가족)
불응/불능/분거 사유			
【1. 불응】	【2. 불능】	【3. 분거】	
11. 바빠서 12. 사생활 노출 기피 13. 가정사정(실업, 이혼등) 14. 정부불신	21. 늦은 귀가/단기 부재 22. 고령, 장애, 질병 23. 장기 출타(입원, 여행, 출장 등) 24. 직업상 부재(항공기탑승등) 25. 기타	31. 직장(직업) 32. 학업(학교, 취직준비 등) 33. 군대 34. 기타	

◆ 조사 대상 : 가구원 중 만 15세 이상 [실제 나이](양력 2001.8.28, 음력 2001. 7. 10일 이전 출생자)

◆ 비상주가구원(분거가족) : 가족 중 타거처/타지역(해외포함)에 살고 있는 배우자나 미혼자녀

조사표 기입요령

- 응답선택은 해당항목에 ○표 또는 V표를 하거나, □ 또는 괄호() 안에 번호 또는 숫자를 기입하십시오.
- 응답항목 중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기입하십시오.
- 한 문항의 응답이 끝나면 번호 순서대로 다음 문항을 기입하되, 화살표(→)로 표시된 문항은 지정된 문항으로 가서 기입하여 주십시오.
- 조사대상은 만 15세 이상 상주 가구원으로「만 15세 이상」은 양력 2001. 8. 28(음력 2001. 7. 10) 이전 출생자입니다.
- 「조사기준시점」은 2016년 8월 29일 0시이며, 질문지의 「지난 1년 동안」은 2015. 8. 29. ~ 2016. 8. 28. 입니다.
- 이 조사표는 가구주가 응답합니다.
 - '가구주'는 주민등록상 가족관계나 세대주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가구와 가족

선호하는 가족형태

1 귀하는 평소 어떤 가족형태를 선호하십니까?

- ① 부모님과 함께 (→ 1-1번으로)
 ② 1인 가구(독신)
 ③ 무자녀 부부
 ④ 유자녀 부부
 ⑤ 기타()
- (→ 2번으로)

1-1 귀하가 부모님과 같이 사는 형태를 선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부모에 대한 당연한 의무
 ② 자녀 양육문제 해결
 ③ 자녀의 교육효과 증진
 ④ 생활비 절약 등 경제적 도움
 ⑤ 가족간의 화합 용이
 ⑥ 기타()

가족관계 만족도

2 귀하는 가족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다음 각 항목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구 분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해당없음
1) 배우자와의 관계						
2) 자녀와의 관계						
3) 자기 부모와의 관계						
4)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5) 형제자매와의 관계						
6)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7) 전반적인 가족관계						

부모 동거여부 및 부양책임자(생활비 주제공)

3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살아계십니까?

- ①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살아계심 ② 해당 없음 (→ 4번으로)

3-1 (부모님이 한분이라도 살아계신 경우) 귀하의 부모님은 귀 댁에 함께 살고 계십니까?

- ① 같이 살고 있음 ② 같이 살고 있지 않음

3-2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 경우) 귀하 부모님의 생활비는 주로 누가 드리고 있습니까?

- ① 장남 또는 며느리 ⑤ 부모님 스스로 해결
 ② 아들(장남 포함) 또는 며느리 ⑥ 정부 또는 사회단체(정부보조금 등)
 ③ 딸 또는 사위 ⑦ 가족과 정부, 사회단체
 ④ 모든 자녀 ⑧ 기타()

자녀의 월평균 교육비

4 귀 댁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자녀의 교육비로 월평균 얼마를 지출하였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각각 **올해 기준**의 학생수와, **일년간** 월평균 지출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 ※ 공교육비 : 학교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위원회비, 기성회비, 실험실습비 등 학교납입금, 방과후 학교비, ebs 교재료 등)
- ※ 사교육비 :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개인의 필요에 의해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 수강료)

구 분	자녀수	월평균 공교육비	월평균 사교육비
미취학자녀	_____명		_____만원
초등학생자녀	_____명		_____만원
중학생자녀	_____명		_____만원
고등학생 자녀	_____명	_____만원	_____만원

⇒ ※ 미취학자녀 사교육비에서 보육료는 제외

대학교 등록금 마련방법

5 귀 댁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대학생이 있습니까?

※ 자녀가 타지에 있거나 가구주 본인이 대학생인 경우에도 기입하여 주십시오.

- ① 예 (→ 5-1번으로) ② 아니오(→ 6번으로)

5-1 올해(2016년 2학기) 대학교 등록금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셨습니까? 해당되는 곳 모두에 각각 기입하여 주십시오. 현재 휴학 중이라면 최근 재학했던 학기를 기준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① 학생의 부모(가족) 도움 () %
- ② 대출(학자금 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 %
- ③ 자녀 스스로 벌어서 마련 () %
- ④ 장학금 () %
- ⑤ 기타() () %

비문해 가구원수

6 귀 댁에는 15세 이상(2001. 8. 28. 이전 출생) 가족 중에 한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구 분	남	여
중증미만	_____명	_____명
중증이상	_____명	_____명

학부모/학생의 학교교육 만족도

7 귀하께서는 자녀(또는 본인)의 학교생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다음 각 분야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학생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되는 학교별로 모두 작성하고, 학생 본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곳에 기입)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 족	⑤ 매우 불만 족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 족	⑤ 매우 불만 족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 족	⑤ 매우 불만 족
1) 교육내용·수준															
2) 교육방법(수업지도, 평가)															
3) 교우관계															
4) 학교시설 및 설비															
5) 교사(교수)와의 관계															
6) 학교 주변환경															
7) 전반적인 학교생활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8 귀하께서는 현재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분야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매우 효과있다	② 약간 효과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효과 없다	⑤ 전혀 효과 없다	⑥ 모르겠다
1) 지식, 기술 습득						
2) 인격 형성						
3)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						
4) 생활, 직업, 취업에 활용						

환 경

환 경 체 감 도

9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구 분	매우 좋다	약간 좋다	보통이다	약간 나쁘다	매우 나쁘다
1) 대기의 질					
2) 강, 하천, 호수의 질					
3) 토양(쓰레기, 폐기물로 인한 오염)					
4) 소음, 진동					
5) 녹지환경(공원, 가로수 등)					

환경오염 방지 노력

10 귀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다음 각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노력한다	약간 노력한다	보통이다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1)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2)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한다.					
3)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					
4) 합성세제 사용을 줄인다.					
5)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6) 에너지절약형제품(에너지 소비 효율등급 우수제품)을 구입한다.					
7) 환경 및 자연보호운동(활동)에 참여한다.					

안 전

안전상태 변화

11 귀하는 2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현재 우리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안전해졌다. ③ 변화 없다. ⑤ 매우 위험해졌다.
 ② 약간 안전해졌다. ④ 약간 위험해졌다.

11-1 2년 후,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질 것 같습니까?, 위험해질 것 같습니까?

- ① 매우 안전해질 것이다. ③ 변화 없을 것이다. ⑤ 매우 위험해질 것이다.
 ② 약간 안전해질 것이다. ④ 약간 위험해질 것이다.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12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구 분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 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1) 국가안보(전쟁 가능성, 북핵 문제 등)					
2)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3)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 등)					
4) 교통이용					
5) 화재(산불 포함)					
6) 식량안보(곡물가 폭등, 식량부족 등)					
7) 정보보안(컴퓨터바이러스, 기타 해킹 등)					
8) 신종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조류독감,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9) 범죄 위험					

야간보행 안전도

13 귀하의 집 근처에는 야간에 혼자 걷기가 두려운 곳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있다면, 원인은 무엇이고 주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원 인

- ① 가로등이 없어서
- ② 우범지역이므로
- ③ 인적이 드물어서
- ④ 기 타()

행 동

- ①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
- ② 조금 멀더라도 피해 다닌다.
- ③ 집 앞까지 택시를 탄다.
- ④ 호신도구(호루라기, 스프레이, 가스충 등)를 가지고 다닌다.
- ⑤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
- ⑥ 기 타()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

14 귀하가 소비하고 있는 식품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부분에 ○표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1) 친환경(유기농) 식품					
2) 국내산 농수축산물					
3) 수입산 농수축산물					
4) 가공식품					
5) 유전자변형식품(GMO)					

※ 유기농 :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 3년, 그 외 2년)
※ GMO :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한종의 특정유전자를 다른 종에 인위적으로 삽입하여 만들어낸 농산물을 이용하여 만든 식품

자신의 준법수준

15 귀하는 자기 자신이 평소에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잘 지킨다.

④ 비교적 지키지 않는다.

② 비교적 잘 지킨다.

⑤ 전혀 지키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 (→ 16번으로)

→ (→ 15-1번으로)

15-1 평소에 법을 지키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법을 지키면 손해볼 것 같아서

④ 귀찮아서

⑦ 기 타()

② 처벌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⑤ 단속이 잘 안되기 때문에

③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아서

⑥ 준법교육을 잘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질서 준수 수준

16 귀하는 우리 국민들의 공공질서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구 분	아주 잘 지킴	비교적 잘 지킴	보 통	비교적 지킴지 않음	전혀 지킴지 않음
1) 차례 지키기(승강장, 극장, 화장실 등)					
2) 거리환경질서(담배꽂초 버리기, 침뱉기 등)					
3) 보행질서(횡단보도로 다니기 등)					
4) 운전자 교통질서					
5) 공공장소 금연					
6) 공공장소 정숙(휴대폰 사용, 크게 떠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17.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① 전혀 두렵지 않다	② 두렵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두려운 편이다	⑤ 매우 두렵다
1) 혼자 집에 있을 때					
2)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3) 혼자 택시, 지하철을 탔을 때					

18. 귀하께서는 아래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① 전혀 두렵지 않다	② 두렵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두려운 편이다	⑤ 매우 두렵다	⑥ 해당자 없음
1) 나 자신						
2) 배우자(애인)						
3) 자녀						
4) 부모						

안전환경(공동체의 효율성과 무질서)에 대한 평가

19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대해 평소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평가 항목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 서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2)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3)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4)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동네 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이다					
6)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7)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해야 한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20 우리 동네 주거환경에 대해 평소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평가 항목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2)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3)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다					
4) 무리 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이 많다					
5) 기초질서(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등)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					
6)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문화·여가

문화예술행사 관람 경험

2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2015. 8. 29. ~ 2016. 8. 28.) 다음의 공연 및 스포츠를 관람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각각에 대해 관람횟수를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 ① 있다. ② 없다.
- | | | |
|-----------------------------|---------|--|
| ① 음악.연주회 | (번) | |
| ② 연극.마당극.뮤지컬 | (번) | |
| ③ 무용 | (번) | |
| ④ 영화 | (번) | |
| ⑤ 박물관(유물전시회 등 포함) | (번) | |
| ⑥ 미술관(공예, 서화, 전시회 포함) | (번) | |
| ⑦ 스포츠 | (번) | |

21-1 귀하는 문화예술행사에 참석하신 후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비교적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1-2 귀하는 관람한 문화예술행사들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입수하였습니까?

- | | | |
|-------|--------------|------------------------------|
| ① 전단지 | ④ 인터넷(포털사이트) | ⑦ 라디오 |
| ② TV | ⑤ 입소문 | ⑧ 기타() |
| ③ 신문 | ⑥ 현수막 | |

문화예술시설 만족도 및 필요한 문화시설

22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이용하는 문화예술시설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비교적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22-1** 귀하는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문화시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공연장	④ 미술관	⑦ 문화·체육센터	⑨ 주민자치센터
② 영화관	⑤ 도서관	⑧ 청소년 수련시설	⑩ 기타()
③ 야외음악당 박물관	⑥ 복지회관		

1순위 (), 2순위 ()			
① 공연장	④ 미술관	⑦ 문화·체육센터	⑨ 주민자치센터
② 영화관	⑤ 도서관	⑧ 청소년 수련시설	⑩ 기타()
③ 야외음악당 박물관	⑥ 복지회관		

- ## 국내외 여행 횟수

국내외 여행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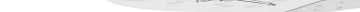
2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15. 8. 29. ~ 2016. 8. 28.) 관광을 목적으로 국내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① 숙박여행 번
 (1회당 평균 일)

② 당일여행 번



- 24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15. 8. 29. ~ 2016. 8. 28.) 해외(관광, 가사, 업무여행 포함)를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없다면, 앞으로 해외여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 | | | | |
|-----------------------|----------------------|----------------------|---|
| ② 가사(가족 · 친지 방문 등) ..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번 |
| ③ 업무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번 |
| ④ 교육(어학연수 포함)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번 |

① 있다.

② 없다.

25. 귀하는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 25-1. (④약간 불만족 또는 ⑤매우 불만족 응답)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① 경제적 부담 때문에
② 시간이 부족하여
③ 교통혼잡 및 이용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④ 여가시설이 부족하여
⑤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⑥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⑦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⑧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⑨ 기타()

- | | | |
|----------|---|--|
| ⑤ 매우 불만족 | ① 경제적 부담 때문에
② 시간이 부족하여
③ 교통혼잡 및 이용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④ 여가시설이 부족하여
⑤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 ⑥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⑦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⑧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⑨ 기타() |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26 귀하는 앞으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귀하는 여가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 1순위나 2순위까지만 기입하셔도 됩니다.

생활시간 압박

27. 평소에 얼마나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여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렇다	③ 거의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 평일				
2) 주말				

가구 관련 사항

배우자의 지난 1주간 경제활동 상태 (※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만 응답)

28 귀하의 배우자는 지난 1주일 동안(2016. 8. 22. ~ 2016. 8. 28.)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또는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 ① 하였다 ② 하지 않았다

가구 소득

29 귀택의 지난 1년간(2015. 8. 29. ~ 2016. 8. 28.) 세금납부(공제)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총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가구소득은 전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의 합계입니다.

- ① 1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미만 ⑧ 700만원 이상

가구원 관련 사항

경제활동상태

30 귀하는 지난 1주일 동안(2016. 8. 22 ~8. 28.)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또는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 ① 하였다 → 31번으로 ② 하지 않았다 → 34번으로

산업	직업
31 귀하는 어디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 직장(사업체)명 : _____ • 직장(사업체)의 주된 사업내용: _____ □□	32 귀하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 하고 있는 일의 종류 : _____ □□ • 부서 및 직책 : _____

종사상의 지위	
33 직장(일)에서 귀하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구분합니다. ■ 상용 : 1년이상 ■ 임시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일용 : 1개월 미만	
① 임금근로자 ❶ 상용 근로자 ❷ 임시 근로자 ❸ 일용 근로자	②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③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④ 무급가족 종사자

개인 이메일 주소 및 홈페이지 보유		
34 귀하는 전자메일(E-mail)주소와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가입한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 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구 분	있다	없다
1) E-mail		
2) 홈페이지		
3) 블로그		
4) 인터넷동호회 가입		
5) 소셜네트워크(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					
35 귀하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음의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있다	없다	구 분	있다	없다
1) TV 홈쇼핑			3) 물품 구매		
2) 증권			4) 예약 및 예매		

생활환경 만족도

36 귀하는 예천군이 살기에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좋다
② 약간 좋다
③ 보통

- ④ 약간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36-1번으로 이동)

36-1 살기에 나쁘다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무엇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청결한 생활환경
② 우수한 교육기관 증설
③ 편리한 교통체계
④ 문화 공간 확충

- ⑤ 취업난 해소
⑥ 우수한 의료시설
⑦ 치안·범죄로부터의 안전
⑧ 기타()

군정정보 획득경로

37 귀하는 예천군의 주요 시책이나 군정운영에 대해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

- ① TV뉴스/신문기사 등
② 예천소식지를 통해서
③ 각종교육/행사/모임 등
④ 예천군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 ⑤ 현수막 및 거리 전광판 등을 통해서
⑥ 공무원 및 이·반장을 통해서
⑦ 주변 지인의 입소문으로
⑧ 기타()

향후 늘려야 할 복지시설

38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

- ①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
② 아동 양육지원 및 돌봄서비스
③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④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서비스

- ⑤ 임신, 출산 지원서비스
⑥ 장애인 돌봄 및 재활서비스
⑦ 가사, 간병 방문서비스
⑧ 기타()

전통시장 개선사항

39 귀하는 전통시장의 어떤 점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교통편의 및 주차시설 확보
② 주변환경 개선
③ 가격의 정찰제 실시

- ④ 상품배달 등 서비스 개선
⑤ 불거리 행사 및 쉼터 확충
⑥ 기타()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주 연락처		조사일시	2016년 월 일 시 분부터	분 동안
조사원 성명		조사원 연락처		